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16:5)에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을 보십시오.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는 조건으로 그의 계획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에 여러 가지 다른 계획들을 세웠지만 주님께서 그 계획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만일 주의 뜻이면 또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 조건을 둡니다. 바울이 하기를 원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주께서 그것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의 처음 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일 주께서 계획을 바꾸시면, 그는 그것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무를 것이라(8절). 이제 바울은 그의 계획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어날 문제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오순절인 6월 초순까지 거기 머물 계획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굉장한 소동이 일어날 것과 그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변경을 가져오게 되었고 계획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바울이나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며 무고히 비난하고 있었고, 바울의 은혜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사실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일종의 자칭 사도입니다. 아무도 그를 안수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사도직에 도전을 하고 있었고, 고린도 사람들의 삶 가운데 미치는 바울의 영향력을 손상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바울에게 참으로 애착이 남다른 곳이었습니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기초를 닦고, 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가 거기 가서 고린도 교회의 구조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사람의 기초위에서 짓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바울을 뒤따라와서 그가 가르친 것들을 손상시키려고 하고 바울이 가르치는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는 우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율법의 멍에와 속박 아래 두기를 원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항상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생들과 또 바울에 관하여 이런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는 자들과 논쟁하는 것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났고 또 물론 이런 일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수년 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에 마술사로서 가장 높은 직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드루이드교의 열 셋 마술사 중 하나였다는 등등을 말하며 지역을 돌아다니며 주로 침례교회에서 연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우리를 그의 비난의 대상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미국 전체에 라디오 사역을 막 시작했었고, 물론 테이프도 가르침이 나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성경 전체를 공부해 가는 일요일 저녁 공부의 테이프를 사용하여 미 전국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갈보리 채플로부터 매 주 테이프를 받아서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수 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 가정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든 많은 모임들이 지금은 모두 미 전역에 있는 갈보리 채플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의 연설이 들은 테이프와 편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일루미나티(Illuminati, '광명회', 또는 '제3의 눈')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그 조직의 첩보원으로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자기가 드루이드교에 마술사들과 있었을 때, 록펠러가 그에게 7백만 달러를 주었는데, 그가 이 돈을 마라나타 뮤직(복음 성가단 이름)을 시작하도록 나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크리스천 록 음악으로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또 예수 운동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테이프를 듣고 있었는데, 이 때에 그들은 이 사람의 테이프를 듣고 사람들은, 척 목사가 록펠러와 일루미나티에게 청탁 받아 젊은 크리스찬들을 타락시키려 한다니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테이프를 들으며, 그의 테이프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는 사실상 중지되었고, 사람들은 나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한 거짓말쟁이였지만,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파사데나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 나의 아내가 일요일 저녁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롤드 피셔와 나의 형제와 다른 몇 사람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가 직접 스미스 목사에게 7백 만 불을 건네주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말하기를, “존 토드, 그것은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고 당신은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척 스미스에게 7백 만 불을 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척 스미스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나는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황해 하며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그의 부 목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돈이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부 목사였던 로메인을 의심했었지만, 나는 그가 그 돈을 썼다는 아무런 증거도 여태껏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거짓말을 어떤 사람들은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에게도, 그들이 퍼뜨리는 이야기들로 인해 나쁜 영향을 주었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터넷에, 자기들의 페이지를 갖고 수천 명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갈보리 채플에 피해를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곳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손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듣겠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 관하여 이러한 거짓말들이 들려지는 것으로 인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의 아픈 마음에서 우려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해 고린도에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항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뒷등을 찌르는 일들로 인해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가르칠 그의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오늘날까지 뚜렷하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와 같이 뒷등을 찌르는 일들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한 것들은 어떤 일이든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므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나 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읽을 때, 우리는 그를 일종의 최고의 성자로 생각하고, 그는 높은 건물을 한번에 뛰어넘을 수 있고, 날아가는 총알이나 달리는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최대의 성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쉽게 낙담하고, 쉽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주께서 바울 곁에 계시어 그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아마도 그때가 바울의 삶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개종한 초창기부터, 그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나누는 것이 그의 꿈이요, 소망이요, 열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와 함께 다녔던 학교 동료들, 즉 가말리엘의 가르침 아래 그와 함께 한반에 앉아있던 다른 바리새인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그들을 압니다! 나는 그들의 생태를 압니다. 만일 나에게 기회만 주신다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울에게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므로 그곳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 나는 그들의 입장을 안다고 하며 논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안토니아 요새의 영문 계단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나누기 시작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으며, 너희들의 마음속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았고, 너희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압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이 종파를 다 몰아낼 것이라 생각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넣으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던 것을 대제사장이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 주위를 비추기에 땅에 엎드려져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증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에, 주께서 그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실 것을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이란 말을 한 그 순간에, 마치 휘발유에 불을 붙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모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중에 흙을 던지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옷을 찢으며, 안토니아 요새의 영문 계단을 향하여 돌진하며, 그를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호위병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서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 갔습니다. 바울의 일생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주님! 나는 확실히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들을 설득시키는 대신에 바울은 엄청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감옥에 앉아있었을 때는 참으로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기회는 왔었지만, 그것은 완전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께서 감옥에 오셔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용기를 내라. 네가 이곳에서 나를 증거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너는 로마로 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아, 거기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곁에 서서 계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주께서 위로의 말로 위로하시기 위해 거기 계셨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그들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해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험악한 폭풍으로 그들은 몹시 들까불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뜻을 잃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어두운 시간들 가운데 있었을 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함이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더 잘 이해하며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받은 것도 너희를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위로 받은 것도 너희를 위함이니, 이는 내가 좀 더 효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힘을 너희에게 주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소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며, 너희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것들과 같은 경험들을 내가 겪었을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위로를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7 □□□ □□ □□□ □□□ □□□□ □□□ □□□□ □□ □ □ □□ □□□□ □□□ □□ □□□.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지 모르나, 우리가 큰 소망을 갖는 것은 너희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8 □□□□ □□□ □□□□□ □□ □□□ □□□ □□ □□□□ □□ □□□□□, 바울은 아마 사도행전 19장에서 있는 사건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와 인근 지역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대 성공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도행전 19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왔고, 이교도의 신앙에서 진리되시고 살아계신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술의 술책에 관한 책들과 그들의 점성술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는 큰 불꽃 축제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서 수 천 달러 상당의 책들과 두루마리를 불에 태웠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인들의 여신인 다이아나의 작은 형상을 만드는 기능공들에게 매우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은세공인 데메드리오는 비슷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다이아나 여신상을 위해서 만든 작은 은 장신구의 판매로 우리들이 부자가 된 것을 아노라.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것들은 진짜 신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더 이상 사지 않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거리를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큰 경기장으로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의 하나인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시간 동안이나 하더라. 바울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였는데 그의 친구들이 만일 바울이 들어가면 데메드리오와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바울을 덮쳐 찢어 죽일 것임을 확실히 알았으므로 바울을 못들어 가도록 강제로 말렸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명에 위협을 가져왔으므로 그 즉시 오순절까지 머물지 않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그들에게 닥친 환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 □□□□ □□ □□□□ □□, 이것은 우리의 수용과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 □□□□ □□□□, 바울은 정말 이것이 그의 사역에

끝이며 그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살아서 그곳을 나갈 가능성이 없고 다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9 □□ □□□ □□ □□□ □□ □ □□□□, 즉 그들은 바울을 죽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나의 능력을 벗어난 절망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 □□□ □□□ □□□□ □□ □□ □□ □□ □□ □□□□ □□□□ □□□□ □□□□.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심은 우리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그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경우 극단까지 가야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옛 말에, 인간의 난국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벼랑 끝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맡으실 기회를 가지게 되어 우리가 우리자신을 위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자신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까지 오게 된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입니다.

10 □□ □□□ □ □□□□ □□□ □□□□, 나는 사망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 □□□□□. 이 사형 선고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구해내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건짐을 받고 있고, □□ □□□□□ □□□□□ □□ □□□□ □□□□.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로부터 나를 구해내셨으며 또 지금 구해내고 계시니,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구해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11 □□□ □□□ □□□ □□□□□ □□□.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노라 그것은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너희들의 기도는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 □□□ □□ □□□ □□□ □□ □□□ □□□ □□ □□□ □□□ □□□ □□□ □□□□ □□ □□□. 너희들 중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12 □□□ □□□□ □□□ □□□□ □□□ □□□□ □□□□ □□□□□□ □□ □□□ □□□ □□ □□□□ □□□□ □□□ □□□ □□ □□□ □□□□ □□ □□□ □□□□. 이것이 우리의 위안이요, 기쁨이라. 나는 복잡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이 진실하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편지하기를, 나는 너희에게로 갈 계획이고, 마게도니아에 간 후에 다시 돌아와 어쩌면 너희와 겨울을 함께 보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바울은 오지 않았잖느냐. 바울은 두 얼굴을 가진 자로다. 그가 “예”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예”를 의미하지 않고, 그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아니오”를 의미하지 않는도다. 그는 연약하여, 주저하고, 진실되지 못하며, 그는 너희들에게 정직하지 못하다고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큰 소동이 일어나므로 인하여 그가 계획했던 것같이 그들에게 갈 수가 없었음으로 이러한 비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계획을 변경했어야 했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불가피한 변경을 이용하여 그를 성실치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기쁨과 위안은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3 □□ □□□ □□ □□ □ □□ □□□ □□ □□ □□ □□□□□,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직선적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교묘하게 위장하거나 비밀스러운 것으로 너희에게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는 어떤 숨은 의미도 없고,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어떤 숨겨진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항상 전화를 걸어서, 어제 당신이 좋은 아침이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로 무슨 뜻이냐고 묻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좋은 아침입니다!

결코 다른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작은 애매한 말들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만큼 영리하지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뜻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 의미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 □□□ □□□ □□ □□□ □□,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 것이라고 믿노라. 여기에 다른 숨은 뜻은 없노라.

14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16** □□□ □□ □□□□□ □□□, 이것이 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썼을 때 정말로 그렇게 할 계획이었고 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 □□□□□□ □□□□ □□, 사실 바울은 그 겨울을 그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지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 □□□□□ □□□ □□□ □□□□□□, 고린도에서 나는 수리아로 배타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17 □□□ □□□ □□ □□ □□ □□□□□. 그것이 경솔하게 한 것이었겠느냐? 바울이 경솔하다고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저 말만 할뿐이며, 실제로 그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경솔하게 말만한다고 했습니다. □ □□□□□ □□□ □□ □□□□ □□□□ □□ □□□ □□ □□ □□ □□ □□□□□?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말하는 이들은 바울의 사역과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미치는 그의 영향력을 파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를 손상시킴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향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거기 고린도에서 이러한 일을 바울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18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그것은 '예'라고도 하고 '아니오'라고도 하는 이중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동시에 '예'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노라.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예수님은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20** □□□□ □□□ □□□□ □□□□ □□□ □□ □□, □□□ □□ □□□□ □□□ □□ □□ □□□□ □□□ □□□ □□□□. 나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또 이중으로 말하지도 않았노라. 나는 동시에 '예'와 '아니오'라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비난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그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1 □□□ □□□ □□ □□□□ □□□ □□□ □□□□ □□□ □□□ □□ □□□□□□, 나의 사역을 확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기름 부으신 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대하여 전화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번 주에 여자에게 안수를 주는 것에 대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전화를 건 사람에게, 우리는 아무도 사역자로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을 사역자로 임명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역자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손을 얹고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임명하노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수 년 전 어떤 교회에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안수한 것만큼이나 나쁜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역자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당신을 목사로 임명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으로 당신을 목사로 임명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임명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사로 임명 하셨다면, 당신은 사람들의 확증이나 안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역자로 임명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 □□ □□ □□□□ □□□□ □□□□ □□□ □□ □□□ □□□□□. 하나님께서 그분의 승인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1:13-14절)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는 어떻게 그들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 인치심은 소유주가 도장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인치심으로서, 소유주가 도장 찍는 것인데, 그것은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시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보증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속하시고 보증금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보증금인 성령을 주셨고, 그것은 거래를 끝내시겠다는 주님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주님은 당신을 그저 걸려있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거래를 완료하실 것입니다. 구속의 일을 완성하시리라는 주님의 의도를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당신을 인치셨습니다. 당신에게 소유주의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주께서 값 주고 사신 그의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생각과 개념을 여기에 반복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단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23 □□ □ □□□ □□ □□□□ □□ □□□□□ □□□, 내가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부르노라. 로마서에서 (로마서 1:9절)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밤낮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그의 증인으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도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을 삼나니, □□ □□□□ □□ □□□ □□ □□□ □□□ □□□. 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했었노라. 내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다 뒤집어 놓으려고 했었노라. 그래서 이 큰 대결에서 너희를 아끼려는 것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로다.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었습니다. **24** □□□ □□ □□□ □□□□□ □□ □□□, 내가 어떤 권위나 너희를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 □□ □□□ □□ □□ □□ □□□, □□ □□□ □□□ □□□□□. 너희가 바울 안에 선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 안에 섰음이라. 나는 단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삶의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처음 일곱 장에서 바울은 이 모든 거짓 고발들에 대해서 그 자신을 변호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다룰 것입니다.

바울은 양 무리를 주관하는 자로 그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인, 총명한 기쁨을 가지도록 너희들을 돕기 위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들 그리고 개인적인 실패와 고통의 때에 우리가 받았던 위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그곳에 계셔서 위로해 주셨고 절망과 낙담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흙더미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을 바위 위에 세우셨고, 우리의 가는 길을 확정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겪은 고통과 시련들이 삶에 시련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이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겪었으므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주님!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진리와, 그리고 당신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인들에게 쓴 바울의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다소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음란의 문제들, 분열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분열된 충성심과 분열된 교리적 입장으로 인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성찬식을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성찬식이 무슨 파티를 하는 것같이 되었고, 경외심이 결여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남용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관하여는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편지는 본질적으로 교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는 가혹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그의 편지를 받아들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도가 바울의 편지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한 것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가져올 것이기에 디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실 바울은 협박을 받아 에베소를 떠났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큰 소동이 있었고 바울의 생명에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로아로 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바울이 잠시 후에 우리에게 말하겠지만, 그의 편지가 고린도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몹시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의 영은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서 역사하시고 계셨지만 그는 이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 들떠있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빌립보로 갔고, 그곳에서 디도를 만났으며 그의 편지에 대한 반응의 말을 디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를 빌립보에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린도 교회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좀 늦어진 것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큰 소동으로 인하여 그의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오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바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아직까지 가지 못한 이유와 조만간 갈 그의 의향을 설명하는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을 다음과 같은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1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그의 편지에는 근심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의 편지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고, 또 힐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결심하기를, 내가 슬픈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않을 것이라. 내가 망치를 들고 징계하는 선생으로 가서 그들을 다시 치기를 원치 않노라. 나는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이는 너희에게 슬픔으로 다시 가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라. 그 편지는 근심과 슬픔으로 쓴 것이지만, 내가 갈 때에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2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이것은 불가피한 교정과 견책입니다) 나의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자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또 너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노라. 너희들을 보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라. 그렇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슬프게 만든 바로 그들이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호되게 쳤기 때문이라. 나는 다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노라.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슬픔으로 다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으니, 이는 나를 기쁘게 할 자들이 나로 인하여 슬프게 된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이로다.

3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줄 확신함이로라. 그래서 나는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라. 내가 갈 때에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모두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함이라. 우리가 거기도 도착했을 때 나는 슬픔으로 만나기를 원치 않으며, 예수님 안에서 단지 기뻐하며 교제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노라.

4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첫 번째 편지를 말하고 있음) 예레미야는 우는 선지자로 불려졌습니다. 아마 바울은 우는 사도로 불려도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주 애통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첫 번째 편지는 그의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썼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말하기를, 내가 삼 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역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람들을 위한 것에 있었습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이것을 너희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함이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내가 수 백 년간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에 대하여 항상 큰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나도 바울의 본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의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관심과, 그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또 주님과 교제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는 사도 바울의 훌륭한 마음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바울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로마서(9:3절)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그의 큰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편지에 대해 난해한 점은 목소리의 어조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있어서의 단점은 목소리의 어조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나는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것을 자주 잘못된 어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은 잘못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교하시기 위해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9절) 아담아, 어디 있느냐? 고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의 목소리의 어조를 마치 체포하러온 경찰관처럼 가혹하고 꾸짖는 어조로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상한 심령의 아버지의 목소리의 어조로 듣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러한 목소리의 어조로 바울은 그의 첫 번째 서신을 썼을 때의 그의 마음의 상태를 그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압적인 문체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마음 아파하고, 심히 괴로워하며, 사랑으로 가득찬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가 주님께로 인도했던 자녀들이 타락하였고, 그들이 미혹되어 잘못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첫 번째 서신 5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들 가운데 있는 악을 묵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근친상간의 관계의 경우가 있었는데, 한 젊은 남자가 그의 아버지의 부인과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묵인하고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악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리만큼 관대하다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 편지 쓰기를, 그 자를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그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바울이 그들에게 하도록 제의했던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를 고린도 교회에서 추방 또는 파문하였으며, 이에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족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로부터 추방당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다.** 너희들 중 많은 사람이 우리의 충고를 따랐고 이런 사람을 멀리하였도다.

7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그가 회개 했으니, 그를 용서해 줄 때가 왔도다. 다시 그를 교제 안으로 받아드릴 때가 왔으니, 그래야 그가 더 심한 슬픔과 고통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8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는 용서의 여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교제 안으로 다시 회복하게 할 여지가 있어야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물론 그것은 비극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죄 중에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자백이 있을 때, 즉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있는 온전한 교제 안으로 다시 그 사람을 데려와서 회복시킬 여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가혹한 태도를 취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어떤 면에서 영원히 끊어버립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는 당신과 이제 영원히 끝이라는 태도 말입니다. 그러나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을 다시 교제 안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여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서 6:1) 말하기를, 만일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한 그 자를 회복시키도록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이제 바울은 너희의 사랑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라.

9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그러한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의 일부는 너희가 참으로 주님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함이라.

10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뉘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기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임명하셨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요한복음 20:23).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엄한 권위가 사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도의 권위로서 말하기를,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대표로 내가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용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에게 준 예수님의 위임의 결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사람에게 죄를 고백 하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물론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고해소가 있고 신부에 의해 죄를 사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그녀를 그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죽게했을 때, 우리는 그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다윗이 죽게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 대하여 죄를 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죄를 자백했고(시편 51:4)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중풍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누가복음 5:20-21), 그들이 지붕에서 그 병자를 줄에 달아 내렸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화가 나서 참람한 말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죄를 범했다고 자백하고, 예수님께 죄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여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사단이 와서 말하길,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냐? 고 말합니다. 너는 네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 뭐 용서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 그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것 같으냐? 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목사로서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그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권한으로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요한일서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그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예, 당신은 죄를 자백했고 또 용서함을 구한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목격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당신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회개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포기하기 싫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며,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답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 당신은 용서를 받았고, 또 자, 당신은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할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일 당신이 당신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자백했고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또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에게 또한 그 사역에 장엄한 책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고 오면 우리는 기도하려고 그들에게 손을 얹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라든가 하는 것이 전혀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택하셨고, 우리의 손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대신하여 내가 그들에게 손을 얹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손을 그들에게 얹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손을 당신에게 얹는 것으로 당신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나를 통한 주님의 손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또는 앞에서 나는 그것을 용서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이요, 우리는 주님의 발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누가가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즉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들려올라 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승천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모든 것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계속해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들은 사도행전에서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인 지금은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은 주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계속하셨고, 주님의 사역을 계속하셨으며,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가르치심을 계속하셨고 또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사들이며, 또 주님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여기 서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것을 말하고 있노라. 주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도록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앞에서 용서했습니다.

11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궤계를 알지 못하는바가 아니로라. 오늘날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단의 궤계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또 충돌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첫째로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육적인 면으로 그것에 끌려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인해 거기 끌려 들어가 자신에게 소리지르거나 흔들리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할 때, 사단은 당신을 찌소리 못하게 해치울 수 있는 육적인 부분으로 당신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이 적의 공격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인 충돌로 되돌아가지 말고 영적 무기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4절에서,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적의 이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많은 가정과 많은 사람들의 삶에 견고한 요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영과 육의 싸움으로 인한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면으로 이런 일에 끌려들어가서 화를 내고, 또 분노하며, 미친 듯이 격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적 문제임을 인식치 못하고 곧장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끔찍한 말들을 하는 것은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단의 공격에 대한 영적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것들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육신적인 면으로 끌려들어가 결국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라는 영적본질을 인식한다면, 이것은 영적전쟁임을 알고,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11-18)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나는 사단을 대항하여 영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사단은 결정적인 강점을 갖고 있지만,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나는 벌써 이겼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만일 내가 계속해서 영에 속해 있고 영적 영역 안에 있다면 나에게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만일 내가 끊임없이 나를 육신적인 영역 하에 두려고 노력하는 사단으로 나를 유혹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사단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아는 것 중에서, 첫째로, 이것이 사단의 공격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다.

둘째로, 그 사단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4: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호하심으로 정정당당히 서라!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여 사단의 공격에 저항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유다서(9절)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당신과 사단 사이에 있게 하십시오.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그 다음 셋째로, 세 번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단을 패배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패배당한 적입니다! 당신은 사단이 도망가야만 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사단은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과 16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울의 반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울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으므로 네가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님! 사울과 내 사이가 현재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일 사울이 내가 베들레헴에 내려 갔다함을 듣는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가야할 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갔고, 아주 잘 생기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 보이는 이새의 장남을 보고 그는 아마도 이 아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은 사무엘 앞을 모두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고 물었습니다.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쑥해 남아 있는데 그는 사춘기 소년으로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니라!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아직도 왕위에 앉아 있었고 사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정당한 왕이었으나 사울이 아직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에 의해 통치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속하여 다시 하나님의 통치하에 두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을 이기셨고 또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고 기록된 옷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군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울처럼 사단이 아직 왕위에 있어서, 예수께서 군림하시어 통치하시지 못하도록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패배를 당했으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가 행하고 있는 권위와 능력은 빼앗긴 것이고 법적으로 정당한 권위와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사단에게 대항할 때, 사단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패배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에게 대항하고 사단이 잡고 있는 영역에서 그를 강제로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즉 당신의

부모라든지 자식이 사단에게 꼭 잡혀있거나, 사단의 지배력 아래 있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능력에 대항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할 때, 사단을 그것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빼앗긴 권위 밖에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사단은 매우 뻔뻔스럽습니다! 사단은 그에게 속하지도 않은 곳에 가고 또 강제로 나가도록 가해지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사단과 그의 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위와 그를 영역 밖으로 내어 쫓을 권위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의 궤계를 알지 못하는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술책에 대해 말합니다. 마귀는 미혹하는데 명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여기에 있는 가장 약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사단은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단을 대항하여 설 수 있는 이 권위와 능력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궤계를 알지 못하는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12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그것은 바울이 큰 폭동으로 그의 생명에 위협을 받아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던 후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왔습니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영광스러운 문을 여셨습니다.

13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바울은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들로 인해 엄한 편지를 보내었어야만 했던 것으로 인해 불안했었습니다. 디도는 바울을 드로아에서 만나서 고린도의 상황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은 그리스도 건너가 빌립보로 갔습니다. 거기에 디도가 있었고, 그곳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난번 편지인, 고린도전서 15:57절에 바울은 예수께서 사망의 쏘는 것을 제거하신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다시 그 기쁨과 찬양을 올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둘 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합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 직면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에 대항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나도 또한 그 승리 안에 들어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사단을 패배시키신 주님의 완성된 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풍미, 좋은 풍취,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영광스러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향기와 풍미가 실제로 스며 나온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이 가면, 당신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 즉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달콤함 때문에 그 방은 당신에게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변해 집니다.

15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보시고 또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당신을 보실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콤한 풍미와 냄새며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16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향기이고 심지어 멸망하는 자들에게 까지도 아름다운 향기이지만, 그들에게는 그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접했지만, 그들의 거절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는 것을 생각할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 중의 몇은 단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로마의 모든 영광과 의회와 공공 광장 등이 있는 로마 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작은 지역인 이곳에 있는 12명의 남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정말로 이 타락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에 족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2장이 끝나므로 인해 연결이 안되지만, 다음 장의 3장 5절에 가면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감당하겠는가? 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만족은 나 자신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나의 만족은 모든 것에 족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는 모든 것에 족한 하나님(the all sufficient One), 전능하신 하나님이라(EI Shaddai) 고 하셨습니다.

17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변개시키지)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요점은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매매합니다. 그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 전화 매매 기술을 사용합니다. 편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자금을 모으기 위해 위급 상황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매우 현저하게 알려진 한 봉사 단체는 오는 12월의 위기에 관한 간행물을 우편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있을 경제적 위기를 대비하여 당신의 도움이 필요함을 구하는 것을 우송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타락시키는 다른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하거나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책임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며 타락시키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술책들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책임에 대해 대답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그것이 온전히 순전한 사역이었음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허위 긴급 상황이나 위기 상황을 만든다거나 어떤 술수를 쓰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당신을 대표하기 위해 나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파산하게 되어 파산 법정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천 산 위의 목축들의 주인이시며, 또한 목축들이 풀 뜯어 먹는 언덕들도 주님의 것이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사람들을 의지하셔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시며 도리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이 잘못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파산지경으로 가겠습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들로 부터 구걸하기 위해 술수를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지원해 주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까? 만일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공급해주실 수 없으신 분이시겠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믿습니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셨고 또 공급해 주신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축복인지 아마도 여러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기쁨입니다! 나는 오래 전에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니다. 사실 은퇴하는 문제에 대해 한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바쁘게 하셔서 나는 나의 침대 옆에 작은 표지를 붙였습니니다. 그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이 지구에 살게 하셨고 나는 그것을 이루는데 너무 뒤져 있어서 아마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입니니다.

우리가 매달 간부 회의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 갈보리 채플의 사역을 위해 너무나도 넘치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심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캠프와 트윈 픽과 뮤리에타에 있는 수양회관들 그리고 성경대학과 또 전국에 퍼져 있는 65개의 방송국 등,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빚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음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신실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신뢰 하였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족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거듭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을 신뢰한 자들의 믿음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할 바깥세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그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자산과 기회를
주심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 하시고 계신 일들을 계속 하옵소서. 우리는 모든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 장

고린도후서 3 장을 펴십시오.

바울같이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에게도, 그를 험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비극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평함으로써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발견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진흙을 던진 사람만 자기의 땅을 잃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흙을 던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바울의 권위와 사도직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바울은 사실 그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더 공부해 가다보면, 바울은 그가 한 일에 대해 자랑하도록 강요된 것을 봅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과 그의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기 위하여 마지못해 그의 사역에 관하여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통신 수단에 많은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전화를 걸어 지금 교회를 분리시키려는 이러한 자들이 돌아다니니 조심하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사역들 뿐 아니라 가짜 사역들도 있었습니다. 양떼들을 떼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항상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떼들을 탈취하려는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양떼들을 먹이려는 참된 목자들도 항상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도 참 목자들이 있었지만 또한 가짜들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이나 전도 사역 등을 하러 새로운 지방으로 갈 때에는 추천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사역자가 집회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하는 추천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선 그의 사역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회 전도사들은 추천서나 위임장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 장의 시작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내가 내 자신을 너희에게 추천하는 것이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편지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들로부터 갖고 와야 하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아니면 너희들로부터 받을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고린도에서의 나의 사역을 확인하는 너희들의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바울은 말하기를, **2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바라.**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삶과 너희들의 성령 안에서의 삶이 곧 나의 사역의 추천서니라. 그것이 나의 사역을 증명하도다.

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들이 증거요, 증인이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7:16) 거짓 선지자들에 관하여 하신 경고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훌륭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심하게 비판적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사역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사역에 대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사역을 열매로 평가한다면, 그 사역의 열매로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너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증거요,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삶, 성령 안에서 너희의 행함, 사역의 증거로서 오직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라.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곳이 바로 진정한 사역이 되고 있는 곳이며 사역에 대한 확증이 생기는 곳입니다.

4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이라.

5 우리가 무슨 일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역은 성령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것같이 생각하여 내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 정기 간행물을 보면 성공적인 사역 세미나에 대해 미국 전역에 걸쳐 열리고 있는 광고로 꽉 차있습니다. “방법론” 세미나 같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이번 주에 본 것 하나는, “당신의 교회를 6 주안에 30 명에서 300 명이 되게 하는 방법” 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관심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단지 400 달러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방법을 배워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방법”에 대한 세미나가 전국에 열리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세미나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일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행하신 것에 대해 내가 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항상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이곳 우리의 사역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그것은 어떤 비밀도 아니요, 어떤 기술도 아니요, 어떤 능력도 아니요, 또한 어떤 특수한 재능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삶과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셨느니라. 6.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군이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이 새 언약의 능력있는 일군이 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이것은 율법을 말함)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 옛 언약은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출애굽기 19:5 절), 그것을 백성들에게 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계명들을 지키고 거기에 기록된대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임할 축복들을 선언하셨고 또 그들로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신명기 26:9 절), 한 쪽은 에발 산이고 다른 쪽은 그리심 산이 있는 세겜 지방으로 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얼마는 한쪽 산에 서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쪽 산에 서고, 백성들은 아래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에발 산에서는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않을 때 그들에게 임할 저주들을 선언했고, 그리심 산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에 임할 축복들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들의 순종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군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것은 법문, 즉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종종 바울이 말한 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독한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법문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율법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단지 당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나타내줄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단지 우리를 정죄할 뿐입니다. 그 법문은 우리 모두를 정죄하여 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율법(신명기 27:26) 그 자체가 말하기를, 율법 전체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0 절에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규칙과 규정과 율법을 지키므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법문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은혜와 용서와 자비의 언약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출애굽기 32 장), 모세와 여호수아가 진에 가까이 다다르자, 진중에서 소동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백성들이 뭔가 못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진에 가까이 오자 백성들이 금상 주위에서 춤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기신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들은 바로 이 첫 두 계명을 벌써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두 돌판을 땅에다 던져 깨뜨렸습니다. 모세가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진에 가지고 들어갔다면 그 전체 진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즉시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첫 번째 두 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판들을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다시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 장) 모세에게 백성들이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있도록 하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한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죽음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여 죽게 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형선고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문(법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7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이것은 죽음으로 정죄하는 율법을 말합니다.)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출애굽기 34 장 29-35 절) 내려왔을 때 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을 가진 이 율법이 그렇게 영광스러워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그들은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맺은 영구적인 언약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새 언약, 즉 신약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은혜와 자비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없어져 버릴 이 옛 언약도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모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었습니다. **8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새 언약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9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다른 말로,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서로 비교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교제의 영광스러움! 성령님의 내재하심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스러움! 그것은 옛 언약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갖는 이 새 언약의 훨씬 더 큰 영광으로 인해 옛 언약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옛 언약도 영광스러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세우신 이 새 언약의 영광과는 아무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는 이 얼마나 최고의 영광입니까?

11 없어질 것도(이것은 옛 언약입니다)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덜’과 ‘더’의 논증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용어색인(concordance) 책을 가지고 이 ‘덜’과 ‘더’의 논증을 모두 적어 보기를 권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로마서 8:32 절)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가 어찌 (더욱)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특히 로마서에 있는 이 ‘더욱(much more)’은 참으로 중대한 공부입니다. 바울이 이 ‘더욱’의 논증을 자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두 언약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 언약도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 그것은 죽음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옛 언약이 영광이 있었다면, 생명을 주는 언약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갖는 이 새 언약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12 우리가 이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갖는 구원과 구속의 소망을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고 했습니다.

13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모세처럼 아니하고, 담대함과 명백한 말로 명확하게 또는 담대하게 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구약에 나오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린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으므로 인해 그의 얼굴에 있었던 광채를 그들이 볼 수 없도록 수건으로 가렸고, 그래서 그들은 광채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채가 사라져 없어졌다는 사실은, 단지 옛 언약이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대체하실 때 옛 언약은 사라져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의 얼굴에 있는 광채의 영광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4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이것은 이 수건을 말합니다)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므로 모세의 얼굴에 가려져 없어지는 영광을 볼 수 없었던 이 같은 수건이

오늘날도 그들의 얼굴 위에 가려져 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구약을 읽을 때, 이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은 구약에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알기 쉽고, 너무나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합니다! 주님은 그의 초림 때에 메시아에 대한 300 개가 넘는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이 수건이 그들의 얼굴에 가리어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며 비극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25 절에서,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blindness)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수건으로 가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한복음 5:39 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 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있는 이스라엘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blindness)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그 수건이 제거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를 가장 담대하게, 가장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훌륭한 증인들이 됩니다. 그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에 갑자기 구약이 선명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서를 읽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성경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건이 그들의 얼굴에 가려져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보지 못합니다.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 때 그 수건은 벗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명백하고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보게 됩니다!

15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바울은 안식일 마다 회당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오늘날까지라고 말했는데, 그는 이 서신을 약 60AD 에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현재도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7 년인 지금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만일 당신이 무신론자이거나, 불교 신자이거나, 모슬렘이면 이스라엘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기독교인들에게만 시민권을 거부합니다. 그 수건이 아직도 그들의 얼굴에 가려져 있고,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이스라엘 국회에 종교를 바꾸도록 하는 어떤 출판물이나 전도지를 배부만 해도 투옥하도록 하는 법을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발의된 법은 만일 당신이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가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소책자를 배부하기 시작했다면 일 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탄나휴 수상이 이 법을 통과하게 하거나 법으로 정하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반대하여 맞서는 그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영사관 등에 나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원하기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음이 완고하게 닫힌 그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 증거들을 고려하지도, 받아드리지도 아니합니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유대인을 보면 그 수건이 벗겨진 것을 봅니다. 이사야 66:8 절과 로마서 11:26-32 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는 이 완악함이 제거될 때에는 이스라엘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그것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암시하는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휴거로 데려 가신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제거될 것이고 예수께서 진실로 그들의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시온을 세우실 때, 그가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 때가 임박했다고 봅니다. 나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스러운 절정의 직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은 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가깝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빠를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곧 다 성취되어질 것이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잘못 사용되고 또 잘못 해석되는 성경말씀이 여기 또 있습니다. 나는 아주 감정적인 집회에 갔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통로를 위 아래로 돌아다니고 굴러다니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나는 그곳의 목사에게 무질서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치광이가 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의 율법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을 때에(사도행전 15 장)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왜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왜 우리가 그들을 율법 아래 두려고 하는가? 그는 그것을 멍에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멍에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1-2 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죽음의 직분인 율법과 살리는 영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살리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정죄만하는 율법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8 장 1 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 장 34 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유대인들과 같이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과의 대면으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변화가 날마다 있어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은 죽었고, 하나님과의 사귄 끈이 끊어졌으며, 사람은 이 신령한 형상에서부터 타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구속에 대한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려하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려하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그런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32 절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단지 예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봄으로써 됩니다. 수건 없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시키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 4:11-16 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교회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역들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조각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씩 깎아내고 다듬으시는 한 덩어리의 대리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을 때 당신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깎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따라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가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물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목적의 하나이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 하나님의 역사를 저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고하여 저서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되어 집니다. 이사야 64:8 절, 예레미야 18:1-6 절, 로마서 9:21 절에서 모두 하나님을, 진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과 형상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토기장이로 비유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멋진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잘못된 것입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예레미야 18:1-6 절),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네게 말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진흙을 가지고 물레들 위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흙을 가지고 다시 반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물레들 위에 다시 얹어서 그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로 이 토기장이의 하는 것 같이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손에서 파상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됩니까? 가공되지 않은 딱딱한 한 덩이로 인해 그렇게 됩니다. 때때로 토기장이의 일은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파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딱딱히 굳어져 있어서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반죽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압력을 가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릇을 만드시기까지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완성된 작품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3:2 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고 그분이 계신 그대로 우리는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눈을 가리는 수건이나,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수건이 있다면 제거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우리를 혼란시키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다른 것에 맞추고 있어서 당신께서 하고자하는 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러한 혼란시키는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오늘 밤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영광의 더 높은 단계 위로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이러하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러하므로'란 단어는 항상 앞에서 언급했던 것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맥기(McGee)박사는 말하기를, '이러하므로'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무슨 이유로?'를 질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러하므로' 했는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의 언약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만일 율법의 언약이 영광스러운 것이었다면 이 새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8절).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대조해 볼 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근거로 모세의 율법을 세우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에 예수님이 떡과 잔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새로운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유월절 밤에 예수께서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길, 이 잔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위해 동물을 잡아 그 피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새 언약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빈약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매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좋은 날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좋지 않은 날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일이 너무나 잘 되어가서 마치 공중에 붕 떠있는 것 같은 날도 있는 반면에, 어떤 날은 모든 일이 다 잘 못되어 가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은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근거를 둔다면, 그것은 매우 빈약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견고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나의 행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선행과, 나의 신실함과, 나의 의로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 **공홀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이 바울에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인기 있는 직분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바울을 그들의 원수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유대교의 적이요 배반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생명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과, 죽음에 직면했고 또 항상 핍박에 직면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공홀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직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2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궤눌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성경 말씀의 의미를 곡해하여 내가 말하기 원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성경말씀을 곡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말씀을 엑스지시스(exegesis)하는 대신에 에이서지시스(eisegesis)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엑스지시스(exegesis)는 본문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고, 에이서지시스(eisegesis)는

본문에다 진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자기가 받아들인 입장에 맞추기 위하여 왜곡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경 강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축복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들을 도와 그들이 그러한 근사한 차들을 타고 다닐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치스런 생활 방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속옷은 잊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는 성경말씀에 와서, 예수님은 디자이너 의복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디자이너 의복을 입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도 디자이너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성경 말씀에 유다가 돈주머니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는 무리들 중에서 회계의 일을 맡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그가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너무나 많은 돈을 갖고 있었으므로 유다가 얼마를 훔쳐도 전혀 표시가 안 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고 부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어떤 교리적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억지로 뜻을 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실하게 다루며, 교활하게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꾸미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요!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경고하기를 (야고보서 3: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성경 말씀을 강해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지어집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씀 속에 있지 않는 것을 끌어내려고 교묘하게 말씀을 꼬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숨김없는 명백한 진리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숨겨진 뜻 뒤에 숨겨 놓고 교묘하고도 교활하게 사용하려고 하시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신비스러운 해석을 찾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이것에 대한 통찰력을 나에게 주셨고, 아무도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알기 쉬운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어떤 숨겨진 동기나 숨겨진 것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수 년 전 내가 사역하던 교회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만나게 되면,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그녀는 오후에 나에게 전화를 하여 문기를, 오늘 아침에 나에게 좋은 아침! 이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로 무슨 의미냐고 물어 오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아침이라는 뜻이었는데 그녀는 어떤 암호나 은밀한 뜻이 담긴 양 항상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 나는 내가 뜻하는 것을 말하고 또 내가 말하는 그대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의미하셨습니다. 아주 알기 쉬운 의미가 보통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으며, 성경말씀을 혼잡케 하지도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음을 압니다. 언젠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해명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를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답을(Every Man an Answer)”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많은 질문들이, 어떤 주제에 관하여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추측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명확한 성경적 해답이 없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말하기를, 그런 것을 다른 성경말씀은 없다고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는 성경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에 대한 해석은 이러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은 우리의 견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로는 이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추측임을 꼭 말합니다. 추측은 추측일 뿐입니다. 한 사람의 추측은 다른 사람의 추측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3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우리는 교활한 말이나 파악하기 어려운 말을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만일 복음이 가려졌거나 숨겨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4 그 중에 이 세상 신(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 매우 솔직하고도 명확하게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사단을 이 세상의 신 또는 이 시대의 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 하셔서 그를 이 땅에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땅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잘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땅을 즐기고, 돌보라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는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사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 즉 이 세상 체제의 신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이 이 땅을 사단에게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도록 권한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자신을 종으로 주었습니다. 아담을 사단의 종이 되었고, 사단은 이 세상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두 번씩이나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고, 사람이 사단에게 그것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주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모시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고는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단이 그것들이 자기 것이고 자기 원하는 자에게 그것들을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들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이 사람에게 의해 사단에게 넘겨졌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속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속의 댓가는 주님의 죽음, 즉 불의를 위한 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을 때, 또 제자들이 주님께서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처음으로 알았을 때, 예수께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자신을 그것에서 면하게 하소서(문자적으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셨습니다.

사단의 제의는 십자가로 가지 말고 자신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값을 치루셨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한 대속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소유로 차지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니다. 인간은 사단에 의해 지금 다스려지고 있고,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이 섬기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이 땅 위에 주들 중에 주님되시고 왕들 중에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5장에서 그날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이 천국에 있을 때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요한이 말하기를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으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를 보라 그가 책을 가져다 인을 떼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돌아다보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날에 이 땅의 권리증서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반환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므로 하늘에서 모든 기쁨의 찬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인들이 떼어질 때에, 이 땅에 있는 불의와 죄의 공해로부터 이 땅을 청결케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셨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되라. 그러나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변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너무나 비틀어 놓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사단의 힘에 의해 지배되고 또 그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이 세상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말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만 내놓으면 다이내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이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구경기에서 다저스 팀이 연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또는 앤젤스 팀이 갓게 될 기회에 대하여 그들은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하여 아주 친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만 나오면 불을 붙인 것처럼 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진실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지배와 사단의 힘 아래 있습니다. 사단이 그들을 잡고 있으며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 우리는 사단의 힘을 묶어야만 합니다.

이것에 관하여 예수께서,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이 진리를 왜곡케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왜곡시키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야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단이 행한 결과로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곡해하게하는 사단의 일을 묶는 기도를 통하여합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창조에 대해, 죄에 대해, 죄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성경말씀과 예언들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계속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죄는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또 합리화 할 수도 없습니다. 죄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 지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들의 마음은 사단에 의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격태세를 갖추어야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사단의 일을 묶어야합니다. 사단의 일이 묶임을 당할 때 그들은 맑은 정신으로 성경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들이 영접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바보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들의 마음은 혼미하게 되어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릇된 행동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종종 옳고 그릇된 행동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의 죄에 묶여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하여 그의 마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혀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죄의 힘에 의해 잡혀 있습니다. 그는 옳고 그릇된 행동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끊기를 원하는지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들을 상하게 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바라고, 소원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릇된 행동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말하기를, 우리는 옳고 그릇된 행동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한 자유인가요? 주님의 지배 아래로 우리의 삶을 내맡기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는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의해 지배되어집니다. 나는 기꺼이 주님께 내맡겼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한 시점에서 나는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묶고 있었던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위해 나의 삶을 맡기기로 작정한 그 날, 그 때 한번 나는 나의 자유 선택권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당신은 사단에게 묶여서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의 뜻을 행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그의 종이 되어 그분의 뜻을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당신이 한쪽이 아니면 다른 쪽일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 아니라면, 바울이 말했듯이, 당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육신과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단의 세력에 묶여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든지, 아니면 당신의 삶을 복종시켜, 주님을 당신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든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사단에 의해서 가려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은 숨겨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암흑 속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은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는 어두움의 세력에서부터 해방되었고, 이 세상의 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굉장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것이 바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면 만족하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빌립에게, ‘만일 네가 나를 보았다면 네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도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들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저지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님께 날마다 조금씩 더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3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한 것을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회복시켜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들은 어둠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5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전부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종들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섬기려고 하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위해 너희를 섬기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너희를 지배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이방인들은 권력을 행사하기를 좋아하는데, 너희들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위한 너희의 종들입니다.

6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처럼 어둠에 더 이상 있지 않으니 이 얼마나 축복 받은 자들인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에 합당하게 여기신 것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둠에 싸여있고, 완전히 타락했지만, 여기 우리는 구속함을 얻고, 깨끗하여 졌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기 때문입니다.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복음의 풍성함, 이 영생의 보배, 이 얼마나 귀한 보배인가!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절대적으로 귀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당신의 혼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보배,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 구원!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아마 당신은 하나님께서 금궤에 넣으셨다면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즉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놀라운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 소망이 이 질그릇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질그릇과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릇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릇이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큰 위험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에 대해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활하게, 거짓으로 다루지 말고 오직 정직하게 다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을 곡해하여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끌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고, 단지 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당신들의 종일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담으신 이 영광스러운 보배를 사람들에게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단지 흙으로 된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질그릇에 아주 값비싼 향기가 담겼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향기를 자랑하지 그 그릇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 얼마나 향기로운 그릇인가!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을 높이고 추종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그들 자신이 영웅이 됩니다. 어떤 병든 사람이 오랄 로버츠(Oral Roberts)에게 가서 기도를 받았고, 또 베니 힌(Bennie Henn)에게 가서도 기도를 받았었지만 더 상태가 나빠졌었는데, 나에게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노라.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합니다. 글쎄, 그것은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오랄(Oral) 이나 베니(Bennie) 또는 누구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질그릇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깨진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깨진 질그릇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성경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일할 때에,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또 그가 원하는 어떤 종류의 그릇이든지 만들 권세를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흙 항아리는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되어지기도 했고, 어떤 것은 물을 담아 집으로 가져오는데 사용하는 항아리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은 이 항아리를 우물에 가서 물을 담아 집으로 가져오는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집에서는 요리하는데 사용되는 항아리도 있고, 설거지 용기나, 물을 마시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용기도 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물을 담아 냉장고에 저장하려고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마실 때에 플라스틱 맛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으익! 나는 플라스틱 냄새가 나는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맛이 없는 청정수를 좋아합니다. 나는 용기 냄새가 나는 물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보배를 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보배를 나누고, 부을 때에, 사람들이 그 그릇을 맛보지 않게 하고, 또 우리가 맛이 변질되지 않은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순전한 기쁨을 받게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을 때에,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변질 시키거나 그릇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이없는 일을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중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것은, 그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사역에 관하여, 결코 쉬운 직업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8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11장에서 바울은 그가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열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삼십 아홉 번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하기 위하여 겪었던, 사면에서 고난과, 동족의 위협과, 성읍에서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 등을 나눌 것입니다.

사방에서 오는 고난! 그러나 **싸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괴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많은 고난이 있었으나, 주께서 보좌위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헌팅턴 비치(Huntington Beach) 시에 사는 귀한 권면의 은사를 받은 아주 사랑스럽고도 상냥한 할머니가 한 분계셨습니다. 버더(Byrd) 여사는 90세의 연세로 경건하면서도 덕망이 높은 성녀이셨습니다. 그녀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께서 보좌위에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 번 그녀를 찾아가 의논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말하기를, ‘찰스(Charles), 하나님께서 보좌위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그 보좌를 떠나시지를 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서 나올 때는,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무질서하고 혼란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잠시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모릅니다. 때로 삶은 매우 당혹스럽고, 아주 혼돈되고, 때때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갈피를 못 잡고 당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갈 길을 예비하시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9 핍박을 받아도**, 오! 바울은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핍박을 볼 수 있습니다.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바울은 사람들에게 의해 버림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말하기를, 내가 네로(Nero) 앞에서 처음 변호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거꾸러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내던져져도,

망하지 아니하고, **10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돌로 맞은 흉터를 갖고 있었고, 매질로 인한 채찍의 흉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몸 전체에 흉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흔적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것들이라!

그래서 항상 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바울은 항상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싶어 하기까지 그들을 화나게 한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여러 번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개종했던 다메섹에서 곧 그는 도망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광주리에 몸을 숨겨 성벽에서 달아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문 앞에서 그가 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마지막 무렵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그는 로마인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노라고 그들 사이에 맹세한 사십 명의 과격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항상 죽음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11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님을 위하여 항상 죽음에 직면하노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금 생명과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면하지만, 그 목적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서신에서(빌립보서 1:20)말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노라. 나는 단지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실 수 있다면, 멋진 일입니다! 내가 살아 있으므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실 수 있다면, 그것도 멋진 일입니다! 단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항상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중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들의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인해 화가 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죽음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동거하며 살고 있었던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들은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그들의 여자 친구들이 이사를

나갔다고 하여 화가 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은 종종 죽음의 위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12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는 죽음에 직면하지만, 그것이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스러운 영생의 진리를 가져다줍니다.

13 기록한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시편 16편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것으로 다음의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이 시편 16편을 마음에 두고 쓴 것 같습니다.

시편 16편을 펴서 보시면 어떻게 바울이 반영하고 있는 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풍부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구약 성경 말씀의 이해를 근거로 한 것이 많음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을 직면했을 때나 죽음의 위협을 받았을 때 이 시편 16편이 종종 그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편은 여러 다른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시편이 너무나 좋은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문제에 당면하든 이 시편은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위로와 위안을 찾으려고 시편을 자주 읽었으리라 봅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때 다윗도 죽음을 당면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살아 있을 동안 다윗은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16:1-11)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것은 다른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찌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없이 바울의 생각에는 시편 116편에 다윗이 말한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는 구절을 결부시켰을 것입니다. (3-11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바울은 사방에서 고난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여기서 바울이 이 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것이 죽음과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고, 바울은 그것과 관련시켰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은 다윗이 말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기록한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바울도,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고 했습니다. **14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줄을 아노니,**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압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15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내가 겪은 이 모든 것들, 모든 환난과 핍박과 등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가 많은 사람으로 감사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너희가 이 풍성한 은혜로 인해 감사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며, 굴복하지도 않고, 계속 갈 것입니다.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몸은 부서지고 못 쓰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겉 사람은 썩어진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흔적,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행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17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지극히 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영광의 비중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장 11-12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므로 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족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비교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즐거움과 영원한 결과 그리고 잠시 받는 고난과 영원한 영광을 비교하고, 우리는 영원을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잠시 있는 이 물질 만능의 세상에 휘말리어 산다면, 이것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것이고, 우리를 쉽게 낙담시킬 것이며, 또한 쉽게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당면할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전진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목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역경을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기에 이러한 핍박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영원을 바라보았기에 (히브리서 11:24-29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볼 수 있었음입니다. 모세는 영원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는 25년 내지는 30년간 애굽의 왕으로 모든 명예와 부와 등등을 즐기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지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막에서 방황하며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지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기에 모든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비밀입니다.

18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들은 물질적인 영역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인 영적 세계를 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해낼 사람이고, 끝까지 인내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영적인 영역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것이 실제 세상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실제 세상이 아닙니다. 가짜 사람들로 짝 찬 가짜 세상입니다. 실제 세상은 영적 세상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13절) 말하기를 우리는 이곳에서 단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실 터가 있는 한 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짧은 기간동안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요 라고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할 집은 하늘 저 편 어디엔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거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잠시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의 왕국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있을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나.** 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영원한 것들에 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들에서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나 일시적인 상을 갖다 줄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6: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거기가 바로 영원한 것들에 나의 가치를 둘 곳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내다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잡고 혼란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몰두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영원한 것들과 당신에게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과, 영원한 것들과, 당신의 왕국과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고정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걸 사람은 후패하고, 이 세상 것들은 사라지고,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당신의 왕국 안으로 영광스럽고도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 장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靈)입니다. 진짜의 나는 영(靈)과 혼(魂)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흠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때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진짜 사람이 아니었고 단지 땅의 흠으로 만들어진 동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비활성 물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魂)이 되었습니다. 이 진짜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갔고, 그 흠집 안에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앞 장에서 영광스러운 복음과 복음의 것들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즉 흠으로 된 이 몸 안에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는 영입니다. 나의 영은 몸을 매개체로 하여 자신을 표현합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의 몸의 매개체를 통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이 흠으로 된 장막, 즉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몸이 무너지면, 즉 내가 이 몸을 떠날 때, 내가 이사해 나갈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이 몸이 허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이 몸을 떠날 때, 그 몸은 즉시 분해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땅에서 취해졌으니 땅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흠이니, 너는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육체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몸과 내가 영원히 살 새 몸,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과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새 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내 몸은 나의 조상의 선천적 결핍들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되었을 때에는 매우 튼튼하고 건강하며 강건하였습니다. 유전 인자의 총체는 아주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이 유전 인자의 총체는 오염 되어졌고 세포들은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는 대대로 내려온 유전 인자들의 복합물입니다.

유전 인자 연구에 있어서 재미있는 것은, 과학자들이 결론짓기를 우리 모두는 평범한 한 쌍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전자의 본체(DNA) 연구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상 한 공통의 조상을 갖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것을 발견하는 데는 과학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래 전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평범한 한 쌍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는 그들로부터 전해 받았습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 이 오염된 유전 인자들을 갖고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100 살 생일을 축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나는 100 번째 생일을 축하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몸으로 100 번째 생일을 맞이할 생각도 없으며 100 번째 생일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 때쯤은 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새 집으로 나를 데려가 거기 거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4 장 2 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그런데 새 몸과 현재의 몸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 장 35 절에서 말하기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 라고 할 때에, 바울은 우리에게 자연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씨를 땅에 뿌릴 때, 너희는 장차 나타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알갱이를 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씨앗에게 형체를 주시는 것과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합니다. 거기에는 관계가 있고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의 몸과 내가 가질 새 몸 사이엔 이 신비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살아나셨고 같은 몸을 가지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분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합니다.

죄는 몸을 부패시키는 요소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최악 가운데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파괴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나가는 순간, 즉 우리의 영이 우리 몸을 떠나는 그 순간, 그 죄의 요소로 인하여 우리 몸은 분해 되고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의 영혼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도 나의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말씀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그의 영혼을 떠나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영에게 ‘이제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은 죄가 없으셨기에, 그의 영혼이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주님의 몸은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부패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몸에 향품을 넣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셨기에 부패시키는 요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 그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입으신 그대로 하늘로 들려올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입으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우리들과 같이 부패되는 조건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현재의 몸과 관련되는 새 몸을 갖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은 우리로 장래에 알게 하려고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몸이 무너지거나 다시 흠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이 몸은 영원한 것에 비교하면 일시적인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새 몸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2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빌립보서 1:19-24) 말하기를, 나는 생각이 착잡하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욕망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가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 몸으로 옷 입기 원했습니다. 그의 갈망은 영원한 영광과 천국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그 맛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셋째 하늘로 끌려올라 갔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돌을 맞은 후 실제로 죽었었는지,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경험을 한 것인지, 살아있었지만 기절한 상태에 있었는지 확실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셋째 하늘에 있었고 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들을 진짜 들었는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인, 새 몸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탄식했습니다.

3 이렇게 입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몸을 입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부활의 날이 오기까지 혼이 잠자거나 형체가 없는 망각의 상태로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라고 말한 것은, 내가 떠나서 이러한 망각의 잠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천국에 있었고, 거기에는 매우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몸은 거기에 누워 있었고, 그의 친구들은 죽은 것 같은 그의 몸을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울면서 그의 주위에 둘러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거기에 누워있었지만 바울은 천국에서, 와, 찬란하도다! 너무나 좋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돌에 맞아 땅에 누워있는 그의 몸을 보면서 울고 있는 동안에 그는 천국에서 황홀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서 새 몸으로 옷 입고 다시 돌아가기를 갈망하면서 탄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옷 입는다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어떤 형체 없는 영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4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몸을 장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12-14)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쓰고 있노라.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들에 대해 말한 적이 있지만, 이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시 쓰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도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장막을 떠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장막을 떠난 후에도 너희들이 기록된 진리를 계속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그것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 되풀이해야 할 진리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는 반복하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이 장막을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로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장막으로 말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일시적인 장소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몸에서 나의 영과 혼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여기 남아서 분해 되어질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벌거벗고자 함이 아니라, 옷 벗고자 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고린도전서 15:51)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말하기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거의 같은 말을 하면서,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바 되었느니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사망의 쏘는 것도 사망의 이기는 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대관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관한 것은 자주 야기되는 주제이고, 거의 제시되지 않는 한 가지 견지가 있는데, 내가 생각키론 이 주제에 아주 적절한 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들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요, 그것들은 모두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 차원에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은 4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날과 시간과 분, 초를 말하고, 지금은 컴퓨터 시대로 수 억분의 일 초를 두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적인 차원에서 일들을 측정하고 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출생, 사망, 내일, 오늘, 어제, 지난 주, 다음 달, 등 우리의 전체 생각하는 과정이 시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 물질적인 영역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시간적 차원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은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미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며, 나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나는 사건들이 땅에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해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해의 궤도를 선회하면서 년수를 보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궤도를 다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궤도 밖에 계십니다. 해가 마침내 꺼져버리고 다시는 지구의 순회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모든 궤도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체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을 시작부터 아십니다. 전도서(3:15 절)에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이 전에 있었던 것이라? 앞으로 있을 것이 이미 있었다고? 솔로몬은 영원한 차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질적인 영역에 있는 인간의 몸을 떠날 때, 나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장래 부활에 대해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의 시각에서는 부활은 벌써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이 부활과 시간적 요인의 주제를 토론할 때에, 그들은 그 전체를 영원의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용어로 생각해서, 내가 만일 죽는다면, 주님께서 5 년 후에 교회를 위해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의하면 나는 이미 거기 있습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동일한 목적을 위해 우리 안에 역사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뜻 깊은 교제를 하고, 당신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님의 왕국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살기를 열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24 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한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당신이 이 몸을 떠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한,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의 영광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장래에 계획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려는 주님의 진지한 의도에 대한 보증으로 내는 첫 지불액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가구점을 갔는데, 아름다운 침대 한 세트를 보게 되었고, 그것은 마지막 하나 남은 것으로 견품이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것은 반액 세일 가격으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당신이 찾고 있었던 것이었고 더욱이 반액 세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수표책을 갖고 있지 않았기에 판매원에게, '이 가구는 내가 찾고 있었던 것으로 이것을 사기를 원하나 지금 수표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현금 200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 물건을 꼭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판매원은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갖고 있는 현금 200 불을 보증금으로 준다면 이 물건은 당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집에 가서 수표책을 갖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 판매원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만일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사겠다고 하면 우리는 당신이 다시 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에 죄송하지만 그 물건을 그 사람에게 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 없고, 이 물건을 살 사람이 나타났는데 당신을 위해 이 물건 보유하므로 그것을 판매할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것을 진심으로 구매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증거로 저당금을 우리에게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보유하도록 그들에게 돈을 줍니다. 당신이 오래 동안 찾고 있었던 것이었고 곧 수표책을 갖고 다시 와서 가격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반액으로 살 수 있는 일생의 기회이기에 당신은 매우 흥분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시 와서 구매를 종결할 것임을 보증하는 저당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완전하게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그렇게 할 의도가 있고, 또 여기 첫 지불액이 있노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1 장 13-14 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다. 이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에 대한 계약을 완성하시려는 의도를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께서서는 당신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친히 주님께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구속을 받을 때까지 유업의 보증이십니다.

6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몸에 거할 때에는**(우리가 이 장막 집에 거하고 있을 동안)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으로라.** 나는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몸의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해 베드로전서 1 장 8 절에서 쓰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직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왕국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 받아, 그 안에서 완전하여 보좌 앞에 설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있는 영광의 충만함입니다. 기대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소망이 있습니다.

8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나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몸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주와 따로 떨어져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 나는 차라리 이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 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을 통하여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차라리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차라리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입니다.

9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나는 그분과 함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를 위해 힘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 장 6 절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갖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영적 축복 중에 하나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바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으므로 나는 이 몸에 거하든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있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주님께 의해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힘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설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믿지 않는 자들이 설 하나님의 대 백보좌 심판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는 자들이 우리같이 몸 가운데에 있을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했던 일들에 대한 상급을 받기 위해 설 것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비마(Bema)”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올림픽 경기에서 심판석을 말할 때에 사용한 것과 같은 헬라어입니다. 올림픽에서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해서 이겼을 때, 그가 심판석인 심판대 앞으로 나오면, 심판관이 그의 머리 위에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합법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상급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속임수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가 걸리게 되면 받은 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합법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는 행함 뒤에 있는 동기입니다. 당신은 올바른 동기를 갖고 행하였는데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의 동기가 올바른 것이었기에 비록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인이 되었으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영광스러운 일을 했지만, 당신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라면 당신은 그것에 대한 상을 빼앗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 장의 산상수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은혜로우며, 인자하고, 친절하며, 관대한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들을 내 자신에게 관심을 끌도록 하고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구제할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구제 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들 앞에 나팔을 불어댄다고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밴드가 나팔을 불며 행진하여 와서 그들의 헌금을 넣습니다. 사람들은 ‘오, 저것 좀 보게! 그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보았는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일세’ 라고 말하지만, 예수께서는,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상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얼마나 신령한 지를 나타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어떻게 나의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나에게 주의를 끌고, 영광과 칭찬을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돌리는 경외와 찬양과 박수가 당신의 상급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내가 했던 일들 뒤에 있는 동기로 판단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내가 그것을 했는가? 여기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과 박수와 능력들이 나의 동기였는가?

성경은 내가 한 일들이 불로 심판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들이 단지 한 모금의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내가 천불을 헌금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읽으면서 춤을 추는 모습들을 텔레비전에서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상을 이미 받았습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 할 것이므로 많은 실망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입니다.

11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예수께서 마태복음 25 장 15-30 절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준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 심판할 때, 다섯 달란트를 받은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두 달란트를 받은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한 달란트를 받은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는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께서 투자한 것을 온전히 드리려고 땅에 숨겼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스스로 판단을 했노라!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은행업자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결과에 대해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행과 의로운 일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타내어졌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동기가 주님 앞에서 순수하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리라고 나는 믿는다고 합니다.

12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깎아내리려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확실성에 도전을 하고

있었고, 또 그가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세를 부리는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만일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학대하고 때리면 그대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왔건만 너희는 나를 적대하는구나. 잔혹한 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서는 매를 맞거나 학대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참,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사람들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금을 거두어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바울이 와서 일을 하면서, 나는 너희들로부터 아무 것도 원하지 않고 단지 여기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너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헌금도 걷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항상 과시할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이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것으로 너희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노라. 나는 외모를 나타내려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외모를 자랑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13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것은 바울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들이 만들어낸 비난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말을 한다. 미친 사람이 거리에 나가 혼자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는가? 바울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저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무엇이 그에게 동기가 되었는지에 대해 계속 말합니다.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나의 동기라. 그것이 나를 떠미노라. 그것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지옥임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갔는데, 온 성읍이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그의 영이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속에 그들의 하나님을 위한 갈망과 경배 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짓 신들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너무나 강권하셔서 그것을 그는 주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거기서 휴식을 취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하고 있었던 이 이상한 교리를 토론하기 위해 그들이 아레오바고(Mars Hill)로 그를 초대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 했었는데, 그것을 초월한 지역으로 바울이 가게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잃어버린바 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아야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잃어버린바 된 사람들을 위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함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동기였습니다.

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는 이것에 대해 시리즈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삶을 완전히 위탁하지 않고 아직도 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 장 20-21 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사람의 육체나, 육체적인 성취나, 재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때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을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십니다. 주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에 계십니다.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성경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모든 사람에게 답변”의 우리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만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지워지는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모든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스페인어든, 다 ‘모든 것’을 의미하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시작, 과거는 완전히 지워졌고 모든 것은 새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너무나도 끔찍하게 살아와서 도저히 재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과거의 모든 죄와 죄의식을 완전히 씻어주시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모두가 새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며, 성령 안에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는 한 때 하나님의 원수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원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항과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반항의 결과인 사망을 가져가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 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것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에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19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죄악도 더 이상 계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범한 모든 죄와 죄악들이 완전히 지워져서 기록이 깨끗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당신에게 더 이상 돌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의 죄는 간음, 살인 그리고 간음을 덮으려고 했던 죄들로 더욱 복잡되어졌습니다.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는 한 이야기를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자를 판단했을 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범죄하였다'고 했으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회개하자마자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당신을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이, 내가 범죄 하였다고 말하는 그 순간, 선지자는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저않아 잘 표현하여 말하기를 (시편 32:1,2 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즐겁고도 기쁜 일인가! 다윗은 더 나아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복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죄 짓는 면허장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이 죄에 대한 허락서 라고 생각한다면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몸 가운데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천국에 있는 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온전하지 못한 것은 죄입니다.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날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종종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록하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우리에게 더 이상 전가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들을 기록하시고는 그것들을 지우셨다면, 오래 전에 종이가 다 남아졌을 것입니다. 오, 주께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20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주님의 대리인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외국에 있는 대사는 나라를 대신하여 말합니다. 영국에 있는 우리 대사는 미국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그는 거기에 있는 외교관에게 미국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나타내려고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나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고 있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구하노라. 계속 죄 짓지 말라! 계속 반항하지 말라! 너희를 멸망으로 인도할 너희들 자신의 길로 가지 말라!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제 주님을 위해 너희 삶을 살지라. 너희 자신이나 너희의 이기적인 만족과 야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 너희의 삶을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살라.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십시오.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나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셨을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완전하시고, 순전하시며, 거룩하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순전하신 예수님께 갑자기 이 끔찍한 살인, 강간 우리가 읽는 우리의 온갖 잔악함을 그분에게 내려놓으셨으니 성령께 얼마나 충격적이셨을까 하고 생각해보곤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시는 계획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죄를 주님께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맡으셔서, 그것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대가로 당신에게 무엇을 대신 주실 것인가요? 주님의 의(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롭게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너는 가서 이러한 법을 지키고 날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행하도록 점검하여 네가 온전함을 증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당신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부패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것들을 다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 당신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굉장한 구원으로 인해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때 원수였었고 분리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위대한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케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갔고 모든 것들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기이한 사랑! 진실로 주님, 당신의 사랑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전하며 죄 사함의 기쁨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 되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이방인들을 대하여 당신의 사신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로 당신의 대표자로서 그들에게 화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 장

성경말씀을 따라 우리의 여행을 계속하면서 고린도후서 6 장을 여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쓴 편지의 원문에는 1 장, 2 장 또는 1 절, 2 절 등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편지글이었고, 장이나 절은 우리가 한줄 씩 참조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후에 첨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과 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귀들을 찾아보기에 용이하게 했습니다. 장과 절들은 단지 성경말씀 속에 있는 글귀들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 서신들을 받아쓰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계속 연결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문화로는 종종 한 장의 끝에 이르면, 다음 장은 다음 주에 읽을 것이라든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연결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말씀은 서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장 끝 부분에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드리라고 그들에게 강권합니다. 또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대신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지 말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은 은혜의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 바울은 곧 이어 6 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를 권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엄청난 값을 치루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고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헛되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죄 사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과 함께 연결됩니다. 바울은 디도서(2 장 11 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과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2 가라사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사야서 49 장 8 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바울은 이사야서에서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구원을 받아드리십시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흥미롭고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언젠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말하기를, 어느 날 나의 삶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의 의도가 어느 날 그렇게 할 것이라면, 왜 미롭니까? 왜 모험을 합니까? 바울이 벨릭스에게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는 떨며 말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을 미롭니까?

그것은 마치 당신이 편두통을 앓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새로운 약이 나와서 즉시 좋아질 수 있는데, 당신은 이 약을 약장에 넣어두고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 하루만 더 고통당하자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기막힌 구원을 미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관해 아마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미루는 버릇’일 것입니다. 네, 나는 언젠가는 나의 삶을 바르게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 고 합니다. 왜 언젠가 입니까? 왜 오늘은 아닙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이 받아들일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시간을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의 헌신을 작정할 시간을 정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그 시간을 미룬다면, 당신이 또 다른 기회를 가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바울이 지금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때를 지나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지막 때에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구원에 반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3 우리가 이 직책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려 했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만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함으로 그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는 일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었지만, 약한 형제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의 자유함이 연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비난 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공공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믿음과 지식을 갖고 있지만, 만일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너희가 거기 있는 것을 보면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도 역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것이라. 그렇지만 그것이 그의 양심을 괴롭혀서 그에게 거침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너희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 장 31 절에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행동이나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자유함으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책이 훼방 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불행히도 사람들에게 거리끼게 했던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수년간 목사로서, 사람들은 목사를 존경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내가 좀 더 높은 강대상에 서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당신을 높이 올려놓는다면 참여할 수 가 없겠지만, 거기에 서 있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곳에서 끌어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역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주님께 대한 당신의 헌신과 당신을 존경하는 것 등으로 인해 당신이 목사이기에 어떤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는 교만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목사의 진정한 개념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목사라는 단어는 노예 또는 종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물며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인 우리는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하고 또 섬겨야 마땅하겠습니까!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군으로 자천하여, 또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처하였다고 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일군으로서 그가 경험했던 이러한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에 공부한 구절에서 바울이 사역에 관해 말하면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 장 8-9 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였고, 당혹스런 일을 당했으며, 핍박을 받았고, 내던져짐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직면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12 장 10 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진정한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 장 10 절에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견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군으로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의 얼마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의 사역자들에게도 일어난다면, 만일 우리도 바울이 견디어낸 것들을 인내해야 했다면, 아직까지 사역을 계속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남아 있을 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많은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이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5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것들은 가운데(in's) 있는 것들이고, 이제는 이것으로(by's) 입니다) **6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8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또는 속이는 자로 알려졌으나) 참되고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in) 있는 것과, 이러한 것으로(by)와, 그 다음에는 이러한 것 같으나(as)를 보십시오. 그는 많은 인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매 맞음 가운데, 갇힘 가운데, 요란한 것 가운데, 수고로움 가운데,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깨끗함으로, 지식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으로, 성령의 감화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영광과 욕됨으로, 악평과 호평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같으나(as)'를 말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여 말한 비난들은 그가 속이는 자 같으나,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나는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했습니다.

나는 가끔 나의 아내와 뉴포트 해안지역을 운전할 때 그곳의 모든 아름다운 저택들을 보면서 아내에게, 뉴포트 해안지역에서 가장 부자가 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쌍하게도 엄청난 부채를 안고 삽니다. 행복의 거짓 약속만을 주는 그러한 것들로 만족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 중에 얼마나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저택과 가장 큰 요트를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혼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신경 쇠약 등으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들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 것에서 자유함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약 같은 것들도 필요치 않습니다. 나에게서는 예수님이 계시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행복과 만족함을 얻기 위해 그러한 것들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나의 것입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것 같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그의 마음을 엽니다. **11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꾸밈없이 솔직히 말하였노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솔직히 있는 그대로를 말하였다. 나는 교활한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너희를 속이려고 애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서신을 읽어 내려가면 바울이 저들에게 거짓 없이 솔직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속임이 없으며 이중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다른 말로, 우리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12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영어에 친숙치 않은 고어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의 애정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에게 너희의 애정을 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억제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나의 마음을 너희에게 활짝 열었도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핍은 내 편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흐르지 못하도록 닫은 것이니라. 사랑이 흐르지 않는 것은 내 쪽이 아니라.

13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공정하게 너희의 마음도 활짝 열라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너희를 향해 활짝 열은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도 나를 향해 보답하듯 활짝 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엄숙한 경고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은 특별한 경우이기에 이 성경 구절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어겨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했던 날을 후회를 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은 기본 원리입니다! 나는 그것이 결혼에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차이점들을 덮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아마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은 전혀 다른 두 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후에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결혼들이 결국은 이혼이라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기독인이 비기독인과 결혼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사업 동업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백만장자로 만들어 줄 제품을 갖고 있다는 것은 훌륭한 계획입니다. 사람들은 사업으로 동업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두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정직하기를 원하므로 모든 장부를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정부로부터 돈을 조금 숨긴다면 당신의 양심은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다른 동업자는 걸리지 않는 한 어떻게든 교묘히 속여 용케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똑똑하다면 안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주님을 모르는 동업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타협하기를 원하고, 만일 내가 그것을 한다면 나는 속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 마음이 찢겨지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생산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정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업자가 고객을 속이려고 할뿐만 아니라 동업자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큰 문제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고, 또 당신으로부터 숨기고 있다가는 한꺼번에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따라야 할 좋은 원칙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 멍에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짐의 분량을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그것은 함께 섞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름과 물 같습니다. 그것은 함께 혼합되지 못하며, 계속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합니까? 그 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일치 또는 동의) 이것 역시 섞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이거나 어두움이 함께 섞이지 않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니까?

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사단) 어찌 조화(일치)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들은 결코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겼다가는 사라지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악령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교리의 바람이 불고는 지나갑니다.

아마도 나의 사역 가운데 이러한 교리의 바람이 불고 지나간 적이 한 4 번쯤 있었습니다. 한 번 지나간 후 한참 있다가는 다시 또 불어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귀 제거 사역이라고 부르면서, 크리스천들을 이런 귀신의 힘과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력한 귀신 등 여러 다른 종류의 귀신들을 알아내기도 합니다. 만일 교회에서 당신이 편하게 나른하게 앉아 있으면, 당신은 무기력한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귀신이 당신을 졸리게 하여 당신이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그 무기력한 귀신을 쫓아낸다고 당신에게 안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일 당신이 트림을 하면, 그것은 당신이 폭음폭식의 귀신이 들렸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합니다. 그들은 항상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방금 말한 것과는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느냐? 만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어떤 악령이 너희 안에 성령과 함께 같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두움과 빛,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사귀며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폭음폭식의 문제를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문제이지 사단의 세력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17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빛이 어두움과 함께 사귀지 말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분리된 삶,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당신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일해야 할지모릅니다. 그것은 동업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에 그것을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일할 때, 회사가 당신에게 거짓 장부나 어떤 참되지 않은 것을 하도록 할 때면 당신의 양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라. 이것이 구별된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밤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선물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어느 누구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당신의 진실된 사신으로서 당신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서 당신을 또한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면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당신께서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주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실제로 7장 1절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서”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 그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이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너희는 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이것이 세 번째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들: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고,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되겠으며, 너희는 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라.

그리고는 이것이 7장 1절에 이르게 하는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가졌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즉 세상에 있는 더럽히는 것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요한은 세상을 정의하기를 (요한일서 2: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에 의해 지배되거나 다스림을 받지 않아야합니다. 당신의 육신적 욕망을 따르고, 당신의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려는 것은 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당신의 육신은 항상 점점 더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유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케 하려고 애쓰는데 그들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많은 남자들이 포르노에 흠뻑 빠져 그들의 아내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터넷에 나오는 포르노를 보고 흥분하고 스릴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아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깨어집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런 행동은 아내에게 모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자의 벗은 모습을 보는 것으로 흥분되진다는 것은 아내에 대한 모욕입니다. 당신이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당신은 공상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혼은 파괴됩니다. 현실은 결코 공상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점들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공상의 세계에서 삽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공상처럼 멋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기대이지 실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맛있어 보이지만 막상 한 입 먹으면 거기엔 아무 것도 없는 솜사탕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비어있습니다. 환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아들로써 나는 거룩하시고, 순전하시며,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처럼 행해야 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또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하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저희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들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오늘날 크리스천 세계의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 신지에 대한 올바른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사람들은 자신을 들어올리면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내려놓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 정도만큼 크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남자인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아마도 나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뿔으로 하늘을 재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뿔이란 엄지에서 새끼손가락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단지 9인치 정도 넓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것들! 이사야가 이사야서 4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뿔으로 하늘을 재셨다고 하셨을 때,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뿔으로 이 전 우주를 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큼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는 한 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셔서, 그의 뿔으로 하늘을 재신 것과 같이 손바닥으로 바다 물을 측량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손바닥에 모든 바다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 “위층에 계시는 사람” 또는 “하늘에 계시는 큰 아빠” 정도로 여깁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은,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한 경솔한 언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합니다!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2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은 소수의 다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실한 사역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도 또한 바울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인도아래 많은 무리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했을 때, 모세는 이 문제들을 해결기 위해 주님 앞에 다 모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이 다 모였을 때 반란하는 두 지도자인 다단과 아비람이 나타나지 않자 사람을 보내어 이곳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심부름꾼이 돌아와서는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는데 우리는 네게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16:15절), 나는 너희들에게서 하나도 취하지 않았고 나는 단지 여기서 너희를 섬기고 인도키 위함이었노라. 나는 너희에게서 아무 것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에, 그는 말하기를 (사무엘상 12:3절), 이 날에 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원하노니 내가 어느 누구에게서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음이라. 나는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내 직분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섬겼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않았고, 아무도 타락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서신의 앞부분인 4장에서 바울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궤눌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고 했습니다. 나는 속이지 아니하였고 말씀이나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몇 주 후에 공부할 11장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않았고, 나는 단지 거기서 너희들을 돌보고, 섬기려 했었노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들의 회의에서 가르칠 때 내가 애써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는, “목사”라는 단어는 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기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군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에게서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절대로 빚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상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12장 14절에서, 보라 이제 세 번째 고린도에 있는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다시 갈 계획을 하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니 이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나는 너희의 물질이나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하노라! 왜냐하면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자녀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역은 양떼들에게서 빼앗아 자기 자신을 부유하게 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적 도움을 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너무나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음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일 이 달에 당신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훌륭한 선교를 삭감하여야한다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파산하는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오전(誤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산하지도 아니하시고, 가난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바치는 것은 특권이지 결코 억지로나 강제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고 했으며,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진실하였다고 했습니다.

3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얽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서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나는 너희를 낮추려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또 너희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었노라. 나의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나의 마음은 너희를 위함이라! 나는 너희를 위해 살고, 너희를 위해 서 죽을 것이라!

4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나는 너희에 대해 자랑을 하며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좋은 사람들이라.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비록 내가 많은 문제들과 시련들을 겪었지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사역의 열매들을 인하여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하신 일들에 대해 말하기를 기뻐하고 자랑하노라. 그리고 나는 참 많은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사실로서 위로를 받았노라.

5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통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무거운 편지였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바울에게 알려졌던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 책망하는 편지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로잡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혹한 면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써 놓고 (아! 내가 저들에 대해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좀 우려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우울한 성격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당신이 어떤 일을 해 놓고는, 혹시 잘못 말하지는 않았나 또는 당신이 말해야 할 것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몇 주간 동안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나? 왜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을 것을, 등 이러한 생각으로 괴롭게 보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어떻게 그의 편지를 받아드릴 것인지에 대해 몰랐으므로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는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랑은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성경말씀에는,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친구에 의해 상처받는 것이 낫습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구로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다루어야 하였던 일들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말한 후에 그는 걱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의 편지를 주고 말하기를 그의 편지를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그들에게 그것을 읽어주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였는지 그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디도는 떠났고 바울은 그의 편지를 썼던 곳인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로 갔습니다. 2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역사하심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니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그의 심령이 편치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신 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처럼 전화로 디도에게 연락하여 어떠한지를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려 가운데 몇 주고 몇 달을 지내야 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있었을 때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그의 심령이 매우 편치 못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을 때 고린도로부터의 소식을 몹시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그들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통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했어야 하는 말들에 대해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받아들였는지를 모르므로 내가 마음이 상하였다고 말했습니다.

6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 항상 우리가 최고의 성인으로 승격시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대단한 능력으로 사용되었던 이러한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성격의 결함으로 인해 우리 자신을 실격시키는 것은 적의 계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수 없어. 아! 나도 바울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일 내가 바울 같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었을텐데, 또는 엘리야나, 이러한 최고의 성인들 같았으면, 하면서 자신을 항상 실격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실격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느리고 더듬거립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을 실격시키려고 하면서, 주님! 나는 단지 어린아이입니다. 그들은 결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 대신에 우리의 결함을 보고 있기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자신을 실격시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당신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당신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웠고, 낙담했으며, 우울했습니다. 그는 메게도냐에서 그가 경험했던 우울증에 대해 말합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있었고, 나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낙심된 자들과 우울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었을 때 드디어 디도가 왔습니다. 디도가 가지고 온 좋은 소식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7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디도는 나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그를 영접했으며, 너희들이 얼마나 그를 잘 대접해 주었는지에 대해 말했노라. 너희들과 디도 사이에 맺어진 결속은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노라 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너희의 사모함과**, 그것은 너희들이 첫 번째 서신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즉 그곳에 있었던 문제들을 바로잡으려는 너희의 사모함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주님과, 주님의 것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함이로다.

애통함과,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들과 그것들이 진전되도록 허락하였던 것에 대해 애통해 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함이란 내가 어떻게 실패했음을 깨달을 때에 오는 애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애통해 하고,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애통해 합니다. 나는 나의 죄에 대해 애통해 하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 애통해 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반항하는 대신에 애통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데는 물론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매우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것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틀렸다고 지적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매우 화가 나서 우리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에 대한 교정을 받아드리면서 애통해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교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들이 어떻게 애통해 하였는지를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됨이 나를 위로했도다.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8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말한 후에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디도에게서 너희가 그것을 받았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후회하지 않노라. 당신도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인데, 무슨 일을 해놓고는 후회를 했는데 결국은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얹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잘못된 것을 애통해 하면서 그것들을 고쳤도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애통함이요, 너희들은 그것들을 바로 정정하였도다.

9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단지 잘못하였고 또 죄 지은 것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슬픔이 너희를 변화하게 만든 것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 내가 잘못하여 너무나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곧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감옥의 죄수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다면 아마도 99%의 사람들이, 오! 정말로 미안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조사해보면 그들은 그들이 그것을 한 것에 대해 정말로 미안해하지 않고 그들은 잡힌 것에 대해 애통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슬퍼함으로 회개하기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

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너희로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살아 왔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전혀 배려하지도 아니하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거칠고, 악하고, 사악하였는지에 대해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마음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며 당신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 진실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의 제자들에게 ‘네 자신을 알라’ 고 했지만, 진실로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으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나이다. 이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다윗은,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아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그에게 공홀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공홀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보신 것같이 그 자신을 보았으므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당신을 회개하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그것에 대해 죄 사함을 얻게 하며,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새 삶을 가져다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들은 새롭게 되었으며 당신은 이 새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는 것이니라.** 세상에는 근심이 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어리석은 일을 하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다치고 부상을 당합니다.

나는 이번 주에 여러 번 음주 운전 기록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 사고를 냈고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을 오늘 밤 이곳에 데리고 나온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은 술에 취해 가지고 운전을 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그는 틀림없이 그는, 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는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괴로워하고 비통해하며 고뇌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번 음주 운전으로 체포를 당한 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그는 매번 체포를 당했을 때마다 많은 벌금을 냈어야 했고, 운전 면허증을 잠시 동안 박탈당했으며 아마도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또다시 사고를 냈다면 변화가 없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근심이며 이것은 사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11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별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썼던 문제들은, 먼저 너희 자신의 삶과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을 청산하게 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은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그러한 죄를 우리가 허락하였던 것을 깨달으면서 분개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그러한 죄악을 묵인했다니! 그래서 너희는 그러한 악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분개하게 되었도다. 그 다음에 그것은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였도다. 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두려움이,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열성이 있었도다!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에 대해 행동을 취했도다. 그리고 별한 것, 즉 죄에 대항하여 보복한 것이라. 너희는 행동을 취하였고, 그리하여 너희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너희는 옳은 일들을 하였도다.

12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것을 쓴 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생각하며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영적 번영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알기 원함이었도다. 왜냐하면 만일 그곳에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어지려면 거기엔 청결함이 있어야하며 죄를 제거하려는 교회에서의 청결 운동이 있어야 함을 내가 알기 때문이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스며든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 가운데 그냥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해 썼을 때 그들은 그 누룩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13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우리는 너희의 위로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디도의 기쁨보다도 더욱 많이 기뻐한 것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디도가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그를 보는 것으로 참으로 더욱 기뻐하였도다. 나는 디도가 온 것과, 그가 너희들을 보는 관점과 또 그가 너희에게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인해 너무나 위로를 받았도다.

14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다른 말로, 너희들은 기대했던 것과 같았도다! 내가 디도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며, 얼마나 훌륭한 교회임을 말하였는데, 너희들이 그것에 맞는 생활을 하였도다. 나는 너희들을 자랑스러이 여기노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에 관하여 자랑하였다 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도다. 너희들은 통과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5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의 사랑이 너희를 향하여 더욱 풍성해 졌느니라.) 그래서 디도의 방문은 그의 생각에는 아주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디도를 영접한 것이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것이 디도의 심정을 사랑으로 풍성하게 했도다.

16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이것은 연고약과 같은 것입니다. 상처가 조성되었었습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너희는 바르게 반응했으며, 문제들을 잘 처리하였고 다시금 잘 되어가고 있도다. 우리의 마음이 격려를 받았고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는 너희들이 우리의 첫 번째 편지에 반응한 것에 기뻐하노라. 올바르게 처리 되었어야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잘 처리하였도다.

다음 주에 공부할 8장을 미리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일요일 저녁에 성경 속으로 우리의 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기도문은 번역 안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9장은 단지 15절의 짧은 장이라 나는 이 두 장을 하루 저녁에 다 공부할 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우 민감한 주제인 돈에 관한 문제와 헌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금에 대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번도 사람들에게 헌금에 대해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람들로 부터 돈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직접 자기 손으로 일하며, 또 그가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돈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돈을 큰 문제로 삼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교회 안에서 돈이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가 떠난 후에 들어올 자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떠난 후에 양떼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양떼들을 돌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인 그들의 배를 채우려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재정적으로 너희들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 자신의 경제적 유익을 위하여 지도자의 지위와 권위를 사용했던 자들은 교회사에 있어서 실제 문제들의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인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 문제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엄청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꾸집한 헌금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주려고 고린도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초대 교회 당시에 자칭 사도이며 선지자라고 말하며 교회를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어와서는 교회를 등쳐먹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답고 관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그들의 관용을 이용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자칭 선지자라 혹은 사도들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재정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 어떤 지침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Didike" 라고 부르는 것을 썼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교훈으로 어떤 규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만찬을 준비하라"고 한다면, 그 규칙은 말하길, 그가 그 만찬을 먹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 또한 만일 그들이 이를 이상을 일을 하지 않고 지내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니 그들을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금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이러한 험잡꾼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규칙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나는 항상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곧 파산 법정으로 향하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그의 재정적 어려움에서 보석금으로 구출해 내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정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항상 너무 많이 지출을 하여 항상 궁핍했습니다. 물론 나는 사람들이 헌금하도록 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세상에 있는 온갖 속임수들을 다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느꼈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절대 헌금을 요구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는 한 번도 헌금에 대해 말한 적이 없음을 알 것입니다. 단지 안내인들이 앞으로 나오면 우리는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헌금을 걷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새 목사들이 교회 직원으로 오면, 주일 아침 광고에 '이제 안내인들은 앞으로 나와 헌금을 걷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앉자마자 나는, 갈보리 채플에서는 절대 헌금을 걷지 않고, 단지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헌금을 받는다고 말해줍니다. 그들은 그러한 실수를 단 한 번만 합니다. 헌금을 걷는 것과 헌금을 받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헌금을 큰 문제로 삼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수년 간 목회 사역에 있었지만, 이번이 아닌 지난 번 성경 전체를 공부해 갈 때 처음으로 십일조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나를 꼼짝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라기서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일조와 헌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라기서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셨습니다. 그 정한 날에 그들로 주님의 보석들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하여 피차에 말하는 것에 대해 말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에 대해 말할 때 주님은 엿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당신 이름을 말하는 것을 당신이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에 조율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었겠지만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당신은 혹시나 그들이 당신을 아는가 싶어서 돌아보지만 그들은 단지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들으시고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주님의 보석들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는 영감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왜 너는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는 돈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주제에 대하여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드리는 자들에게 부어줄 축복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라. 나는 그들에게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하였도다. 그들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으므로 나는 바뀌어야했습니다. 주께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특권과 또 주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굉장한 이익 배당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에게서 그것을 털어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남용되고 있는 것이기에 바울은 이것에 대해 매우 예민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질을 요청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빈곤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등의 지역이었고, 고린도는 그리스의 아래 끝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윗부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곳은 메게도냐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2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등 심한 시련들을 겪고 있었으나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 요한이 짧은 서신을 쓴 목적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쓴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행복은 기분 좋은 상황에 기초한 감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100불짜리 지폐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고, 어떤 마약 중개인이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들이 돈을 찾으려고 경찰서에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 이제 나의 모든 청구서들을 다 지불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청구서 하나를 지불하려고 은행으로 갑니다. 그 은행 금전 출납원이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말하기를, 이것은 위조지폐라고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행복은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기분 좋은 외적인 환경 조건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영적 경험입니다. 그것은 행복보다도 더 깊은 것입니다. 행복은 어떤 외적인 환경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냐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라! 당신의 환경이 전적으로 비참할 수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그들의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그들의 연보를 넘치게 했습니다.

3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이것이 드리는 것에 대하여 열쇠가 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 주제에 대해 계속 다음 장에서도 말할 것이지만, 우리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결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며,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부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드리는 것을 원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교회에 재정적 서약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교회에 다닌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당신에게 일 년간 얼마를 교회에 헌금을 할 것인지를 서약하라고 요구하고는, 지난달에 해야 할 것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의를 주기도 하고 또 교회가 얼마만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해야 할 헌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회로부터 빛 독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런 독촉이 너무나 싫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수표를 쓰면서, 내가 책정했던 금액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그것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로 드리느니 아예 안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존중하지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바울이 나중에 말하겠지만, 주님께서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즐겨내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hilaros로서 거의 ‘너무 기뻐서 들뜬’ 상태에 가깝습니다. 예배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서 들뜬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나,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더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드리는 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이 당신이 드리는 배후의 동기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 그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자원하여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만날 장소인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다고 백성들에게 말하였을 때, 그 성막 안은 금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귀고리와 팔찌 등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여(출애굽기 35:21절) 너무나 많이 가져왔으므로 모세는 마침내 백성이 가져오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출애굽기 36:3-7절).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많으니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입니다. 결코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습니다.

4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그들은 우리에게 간청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아! 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다 낡은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그들은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도로 가지고 가서 당신 자신을 위해 새 신발을 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바울에게 그들의 헌금을 받도록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갈보리 채플에 있는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한번도 돈을 문제 삼은 적이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우리를 위해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우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매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움의 요청들을 고려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수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슬람인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납치를 당해서 팔리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적인 곤경 가운데에 있습니다. 남쪽 지역에 있는 갈보리 채플 교회의 목사인 에드 콘웰 과 게리 쿠시노키 목사는 일주일쯤 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단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굉장한 곤경을 겪고 있는 수단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불쌍한 형제들과 자매들을 도와줄 풍성한 헌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세계에 있는 믿는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여러분들은 자원하여 드리는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 갈보리 채플을 축복하신 것으로 세계 곳곳에 궁핍 가운데에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헌금을 받도록 많은 서원으로 간청하였습니다.

5 우리의 바라던 (기대했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드리는 것은 항상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를 사셨다는 것을 알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청지기인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께 속한 것이고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께서는 나의 은행 계좌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든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은 당신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바울에게 그들의 헌금을 주었습니다.

6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그의 첫 번째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의 첫 번째 편지에 그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그들이 헌금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에 들려 그 헌금을 가지고 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준비되어 있기를 원했고 그가 거기에 있을 동안에는 어떤 헌금이라도 걷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줄 것을 다 준비해 두어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전달했고, 그는 한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디도는 헌금을 그들로부터 받기 시작했고, 그는 그 돈을 모아둘 예금 통장 같은 것에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디도가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히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에게 베푸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고 했습니다.

7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고린도 교회의 특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너희들은 모든 영적 은사나, 모든 언변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일이나, 성경말씀을 해설하는 지식과, 주를 열심히 섬기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너희들의 드리는 헌금도 풍성하게 하라.

그런 다음 그는 말하기를, **8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바울은 이것을 바르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명령으로 이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나는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을 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 그저 너희의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라.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에 드리는 것에 대한 본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드리는 것의 최고의 본보기이십니다.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셨으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고, 천사들도 경배하고 숭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천사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나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양 대신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허락하는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던 사실로 보아 그들이 빈곤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만일 가난하면 양 대신에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다른 사람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동전으로, 이 동전에 있는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고 물으시면서 실례를 들기를 원했을 때에도 동전이 하나도 없어서 동전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부당한 세금을 주님께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돈이 없었으므로 베드로에게 일러 말씀하시길,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 물고기 입안에서 동전을 발견할 것이라. 그것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도 당나귀를 빌려야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보라,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너희를 축복하셨도다. 마게도냐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로되 그들은 관대히 주었노라.

너희는 부요한 교회를 갖고 있으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있고, 붐비는 상업 사회에서 좋은 직장을 갖고 있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는 은혜에 대한 좋은 본보기이로다. 이제 너희는 이 드리는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10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의견을 표하고 있도다. 너희는 그것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다. 나는 너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하고 있노라.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일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일년 전에 너희들이 이것을 시작하였도다. 너희들이 이 기금을 모으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그것을 완료할 필요가 있도다. 내가 곧 갈 것이라. 그러므로 원하기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시작했던 기금을 이제 실천하기를 원하노라.

11 이제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 할 마음만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헌금에 대한 기준입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그것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하기를 원하여야합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여야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13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가 모든 짐을 지기를 원치 않노라.

14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함이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 너희들은 번창하고 있고 또 축복을 받고 있도다. 그러니 그들의 필요를 위해 주라! 그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도다. 그렇지만 언젠가 상황이 바뀌어져서 그들은 번창하여 지고 너희들이 궁핍한 가운데에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로부터 헌금을 걸어서 너희에게 가지고 올 것이라. 이렇게 하여 교회 안에서 균등함이 있게 하려함이라.

15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사를 주셨을 때였습니다. 많이 거둔 자들도 해가 진후에 남은 것이 아무 것도 없었고 적게 거둔 자들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균등하게 하십니다.

16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는 너희를 위한 이런 많은 관심이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디도도 내가 갖고 있는 이 간절함을 갖고 있노라. 너희들이 그에게 잘해 주었고 그를 영접하였도다. 디도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는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간절함과 관심을 갖고 있도다.

17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겠는가? 네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그 권고를 받아들였고 더욱 열성을 내어 받아들였다. 그는 마지못해 간 것이 아니라 열성을 내어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느니라.

18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 형제가 누구입니까? 바울은 디도를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서 이 일을 끝내라고 했습니다. 디도는 그것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함께 한 형제를 같이 보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동료이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고린도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실라일 수도 있으며 또는 아볼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바울의 동력자의 한 사람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었으면 바울이 그의 이름을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종종 놓으셔서 신학자들을 바쁘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그들로 추측하게하고 논쟁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박사 논문을 쓸 때에 이 형제가 누구 였는지에 대해 쓸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를 디도와 함께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잘 알려진 형제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형제를 칭찬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모든 교회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19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말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기로 그를 택하였습니다. 그는 택함을 받았고 그는 교회로부터 거둔 이 헌금을 관리하는데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20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말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훼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헌금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는 헌금을 거두어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선교를 위하여 헌금이 견혀집니다. 우리는 수단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단에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걷을 것입니다. 이 기금에 사람들의 풍성한 헌금으로 십만 달러가 모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글썄,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으니 그들에게 오만 달러만 보내자 라고 합니다. 그게 보통 있는 일입니다.

어떤 특정한 부흥사가 하이티에 있는 한 고아원을 위해 십만 불을 모금했습니다. 한 기자가 고아원 원장에게 그들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매 6개월마다 그들이 와서는 사진들을 찍고는 그들에게 100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TV 방송 일원들과 함께 내려와서는 사진들을 찍고 그들이 그곳에 갈 때마다 100불씩을 주지만 그들은 십만 불을 모금했습니다. 참으로 부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불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일어났었습니다. 돈은 부패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에 대하여 말할 때 매우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찬성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금을 사용할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우 지혜로워야합니다. 우리 교회의 수표는 모두 두 사람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교회 수표도 쓰지 않고 모든 것은 경리부에서 처리합니다. 나는 이 두 사람의 서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다 검토하고 모든 수표를 서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적어도 그것은 나의 의무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달 경리부로부터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한 모든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헌금을 다루기를 원치 않으며 누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등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만일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안다면 나도 인간이라 그 사람에게 아침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어떤 차이를 갖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지고 갈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어떤 비난, 또는 훼방을 받을 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이 다른 형제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바울이 모든 연보를 가지고 일급 호텔의 특실에 머물었다는 등의 비난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21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한다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협잡꾼들의 우편 명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이름도 그런 명부에 올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그 명부에서 제외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은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고 정말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우선입니다. 만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양심이 깨끗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잘못된 인식을 사람들이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하려 함입니다.

22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으므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므로 디도와 다른 형제를 같이 보내는 것은 아무 시험도 없고 모든 것이 아무 의심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

23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사도들, 초대 교회 때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들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내는 이 형제들도 바울은 그들을 사도들이라도 부릅니다.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의해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24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나는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며, 얼마나 훌륭한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가에 대해 자랑하고 있었노라. 이제 내가 그저 자랑한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증명하라. 그리고는 바울은 민감한 헌금의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9장에서 계속해서 말하는데, 성경말씀의 다른 곳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헌금에 관한 재미있는 원칙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 읽고 어떻게 드려야 마땅한지 알아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십일조에 대해서는 항상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까? 정부로부터 세금을 떼기 전의 십일조인지 혹은 세금 공제 후의 순 수익금에서 십일조 드려야 하는지? 만일 내가 모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계속 십일조를 내야하는지? 헌금에 관하여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며 또 나의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헌금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헌금에 대한 주제를 끝맺음하면서 다음 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주님, 나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물질의 얼마를 이번 달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돈에서 얼마를 나 자신에게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기 위해 나는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으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금에 대하여 주신 교훈이 있는데 내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 주님께서 주신 교훈에 내가 반응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분께서는 나를 축복하셨고 계속해서 내가 꿈을 꾸거나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그분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그것이 주님 것임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전달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물질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일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드리하고자하는 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좋으십니다.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너무나 많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풍요함과 관대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금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굉장한 의무감을 느낍니다. 주님! 세계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달 이사들이 요청된 것들을 잘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의 첫 번째 서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응답과 반응을 전해준 디도를 만난 곳은 빌립보에서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두 번째 서신을 곧 보내게 했습니다. 바울은 곧 고린도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고린도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이방 교회들로부터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려고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난국을 위해 그들이 한 풍성한 연보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약에서 우리의 헌금을 관리하는 규칙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헌금을 관리하는 분명한 규칙을 줍니다.

그래서 8장에서 우리는 헌금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의 일부를 공부했습니다. 9장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바울이 8장에서 헌금에 관하여 말한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다른 말로 하자면, 사실 너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도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이런 관대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로다.

2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앎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나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일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이 펍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해 그들에게 말했을 때, 너희가 갖고 있는 주고자 하는 열심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헌금하게 하였도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면서, 그는 그들로 이러한 헌금하는 일에 계속해서 열심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실 나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도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일년 전부터 자원하여 헌금하기를 원하는 너희의 열심을 벌써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관대한 지에 대해 말했을 때 그들도 분발되었도다.

3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나는 너희가 얼마나 관대히 주는 자들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며, 그래서 내가 이 형제들을 미리 보내는 것은 너희들이 헌금할 준비를 하게 함이라. 만일 우리가 갔을 때 너희가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내가 창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 혹 마게도나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내가 갈 때 마게도나 사람도 몇이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너희에 대해서 자랑을 하였도다.

혹 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것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고 관대한 사람인가를 말한 것으로 인해 내가 부끄러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 형제들을 너희에게 미리 보내어 모든 것이 다 질서 있게 준비되어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나의 대리인들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라.

5 이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나는 그들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고 있노라. 내가 곧 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먼저 보내는 것은 그들이 먼저 가서 연보를 견도록 하기 위함이라. 바울이 전에도 말했듯이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 어떤 연보도 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형제들을 미리 보내고 있는 것은 그들이 먼저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것들을 걷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역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내가 보낸 그들이 거기 갈 것이라. 나는 그들을 권면하여 나 보다 먼저 가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다 처리하도록 하였노라.

6 이것이, (헌금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금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1편 1-2절, 다윗의 시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가난한 자를 염려하는 자는 복이 있음이여,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구하시리로다. 주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리니,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를 그의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염려하여 그들에게 주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가득히 차고 네 즙통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했습니다.

잠언 11장 24-25절에,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고 재미있는 역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일 당신의 것을 나누고 흘뜨리지만 당신은 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껴도 당신은 가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9절에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 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 주는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주라, 그러면 너희가 다시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히 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되어 주는 그 말로 주께서 너희에게 도로 돌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더 줌으로 내가 더 받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줄 만큼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주지 않을 여유가 있을까요? 당신이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한 사실은 아마도 당신이 주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분께 드리지 아니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학개의 예언에 (학개서 1:6절) 사람들이 궁지에 빠져있었던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많이 벌지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돈을 전대에 놓지만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많이 거둘지라도 항상 부족하도다. 그는 말하기를 무슨 연고인고? 주의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것은 그들이 오직 그들 자신들만을 생각하고 그들 자신들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주께 드릴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드리는 것을 제지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축복을 보류하셨습니다. 이것을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꾸짖은 것이고 또 왜 그들이 재정적 고난을 겪고 있었던 이유를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고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십일조와 헌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시 반환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이라는 헌금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젊었을 때 경험으로 이 원리를 배웠습니다. 내가 막 대학을 졸업하고 동부로 다시 돌아가 미조리 주에서 전도 사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는 나에겐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학교비용과 졸업 비용들을 지불하고 있었고 미조리로 건너갈 여행비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선교 부흥 집회에 갔습니다. 푸엘토 리코에서 온 한 선교사가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5불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갖고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말씀하시길 그 5불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걸었을 때 나는 내가 가진 것 전부였던 그 5불을 헌금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었고,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졌던 전부였지만 주께서 약속하시길 드러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한 보험회사의 변호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일년 전 내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내가 보고서를 기재했었던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사고를 기억합니까?” “오!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 자동차가 간선도로를 가로질러 우리 쪽 선으로 넘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나는 그 차를 박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을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급정지를 했고 갑자기 뛰어든 차는 내 차를 박는 대신에 내 앞차를 박고는 튀겨 나가 그리피스 공원 쪽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차를 세우고 내 앞차 여자에게 내 명함을 주고는 내가 바로 뒤에 있었고 나는 내가 부딪힐 줄 알았었다고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그녀의 어린 딸이 관찮은가를 확인했고 그런 다음 나는 그 남자가 관찮은가 싶어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차에서 나오면서 온갖 욕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찮은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냥 집에 갔습니다. 나는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차 사고가 있었음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험 회사로부터 서류를 받아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말하기를, 그 남자는 그 여자가 선을 넘어와 그를 박았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 세상에, 전혀 사실과 정 반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목격자들은 다른 주로 이사를 갔고 나만이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는 재판 날짜를 말해주면서 거기 와서 증인이 되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미안하지만 나는 미조리로 가서 그곳에서 집회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당신만이 유일한 증인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곳으로 가는 모든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 준다면 며칠만이라도 미조리로 가는 것을 연기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갈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헌금의 원리의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드렸고, 주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으며, 내가 미조리로 돌아가는 모든 비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세워놓으셨고 그것이 정말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헌금을 위한 최상의 동기는 아닙니다. 나는 결코 이것이 헌금의 동기로 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재물을 주는 자들을 위해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이제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잠깐만,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받을 것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더 많이 주면 더 적게 가지게 된다는 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이 주면 나는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은 나의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밀 농사를 한다고 할 때, 온 밭에 밀을 조금만 뿌려 놓는다면, 추수 날에 당신은 밭에서 적은 양의 수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당신이 많은 밀을 뿌리면, 추수 날에 당신은 많은 수확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헌금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이 적게 드리면 적게 얻을 것이고 많이 드리면 많이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12절에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당신이 드리는 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돈을 빌려서 헌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매우 비천한 정책이고 서투른 신학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지니 네가 줄 때에는 나쁜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모든 일과 네가 네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보라, 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네가 드릴 때에 불평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드린 것에 대해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모든 자에게서 너희는 나의 예물을 받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첫째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떤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드릴지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주의 전을 짓기를 원하고 있었을 때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건축할 모든 재료나 물질 등을 준비할 수 없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헌금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주의 전은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재료는 준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필요 이상으로 가져왔을 때, 다윗은 역대상 29장 10-15절에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15절에서 다윗은,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나그네와 타국인들이오니, 세상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소유니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나는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가 “즐거이(willingly)” 라는 단어입니다.

절대 드리는데 압력을 느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즐거운 마음에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 드리는데 있어서의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에 정한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를 드려야 할지 또 어떤 제사나 요구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주님과 당신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당신이 헌금하도록 압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9절) 우리에게 말하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하라고 합니다. 주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마지못해 인색함으로 내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드린 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주님께 드린 후 말하기를, 내가 감동되어서 할 수없이 헌금을 했다고 불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당신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슬퍼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그것은 주기를 아까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리조나 주에 있었을 때,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프라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사관이 나의 아내와 나를 교회가 끝난 후에 주일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는 맛있는 팟 로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 맛이 있었고 그들은 우리에게 다시 권하므로 나는 그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두 번째의 것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팟 로스트를 사면 보통 일 주일간 먹을 것은 남았었는데 이번만큼은 확실히 일주일도 못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도로 내뱉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너무나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나는 나를 그의 집에 초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가 나를 초대했으며, 내가 두 번씩이나 먹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가 그렇게 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먹었다고 그는 불평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헌금을 드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요구했느냐? 너나 가져라!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노라!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헌금의 원칙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어떤 압력 하에 필요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너희가 마음에 정한대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모든 것을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9 기록한바 (바울은 시편 112: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가 흠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의로운 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흠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남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짧게 축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10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소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은 씨를 풍성케 하소서.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주께 마음에 정한대로 드릴 때 영적인 것들로 더 풍성케 하소서.**

11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바울은, 오, 나는 너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축복 받는 것을 보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들의 잔이 넘치는 것을 보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나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12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 헌금한 것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치도다. 너희의 풍성한 연보로 그들이 지금 겪고 있었던 재정적 어려움도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려 함이라.

거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식품을 살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헌금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식품을 사는 등, 그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 너희의 헌금이 도움을 받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갖고 가는 너희들의 풍성한 연보를 받을 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

13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그들에게 주는 이 헌금을 우리가 전해 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너희의 관대한 헌금을 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

14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보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교회는 모두 하나의 대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모두가 고통을 당하며, 또 한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모두가 다 칭찬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대표단이 수단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엄청난 수량의 식품과 의료용품, 등을 사기 위해 헌금한 수 천 달러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모슬렘으로부터 온갖 참으로 지독한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단에 있는 그들을 위해 걸었던 헌금을 받으면서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이며 갈보리 채플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와 너희의 관용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곳곳에 곤경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보냈을 때, 세계의 여러 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한 것같이 수단에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으로 많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압력이나 요청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에 정한대로 드리려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얼마나 기쁘지요!

우리는 매달 이사회를 갖고 지출 재정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신 것을 인해 우리는 멈추고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으로 우리는 온 세계 곳곳에 나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사람들이 곤경에 있는 세계 곳곳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 받습니다. 필리핀에서 굉장한 화산 폭발로 인해 온 마을이 쓸려내려 갔을 때, 그곳에서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농작물을 심을 수 없는 사람들의 식량을 돕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세계 곳곳에서도 도움을 요청해 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며, 우리는 이곳에 있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관대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통 중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그들의 헌금을 가져감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갈보리 채플을 위해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겸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리의 성경공부 테이프를 전해 받았던 시베리아에 있는 그룹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것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것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매주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와!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니! 그들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베리아에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번 주에 시베리아에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몇이나 기도했습니까? 또한 굉장한 핍박 가운데에 있는 수단의 우리 지체들을 얼마나 잊고 삽니까? 그들은 매일 죽음과 삶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와 중국에서 믿는 자들이 겪고 있는 핍박과, 인도에서의 핍박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한 마을로 들어가면 그들은 매를 맞으며,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에 있는 믿는 자들의 핍박, 우리는 그들에 대해 거의 생각지 않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통치하에 있는 이라크에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담 후세인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교 통치하의 이란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으면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며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은 너희를 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너희들의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돕는 당신의 관용함에서부터 오는 열매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15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이 장을 끝맺습니다. 그는 이 장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드리는 것에 대한 진정한 동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우리의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셨고, 나에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즉 그분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 즉 죄의 삯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다투어 말했듯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사실 모두 당신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것을 다시 돌려 드릴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서는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서는 일천 산 위의 목축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이 궁핍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과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고마움을 당신께 보여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하심과, 축복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헌물로 표현하는 것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고마운 마음에서 드립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즐겨 내는 자들이 드린 그 선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을 여십시오.

10장, 11장, 12장의 배경은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설립한 후 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하고 있었는데, 일단 바울이 떠나자 이리들이 들어와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타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혹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 자신의 주가를 올리려고 노력하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11장, 12장을 공부해 갈 때에, 우리는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말한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돌아갈 것이며, 그들이 바울이 없을 때에 말하던 것들을 바울을 직접 대면하여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그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회개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종류의 대결을 원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갈 때에 거기에 슬픔이 있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에 바울을 타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루면서 그의 사도직과 그의 사역을 변호하는 것으로서 10장을 시작합니다.

1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내가 거기에 있을 때)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여기 있을 때는 매우 유순하고 온유하지만, 그가 떠나 편지할 때는 너희를 극구 비난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온갖 능력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 가운데에 있을 때는 매우 온유하였고, 그러나 진짜 본성은 그의 편지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즉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고, 그들을 다스리려 간 것도 아니고 그들을 섬기고 도우러 갔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들에 관하여 그들에게 편지를 써야했을 때는, 그는 매우 강경하고도, 직설적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서신은 매우 단호하였습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바울은 어떤 위대한 과장된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너희에게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여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에서 다시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청하기를, 내가 그곳에 갈 때 이러한 문제들을 엄하고 가혹하게 다루기를 원치 않으며, 너희들 가운데 담대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매우 흥미로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사도행전(13장 6-11절)에 바울이 한 특정한 섬의 총독에게 전하고 있었을 때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복음에 열려있었던 이 총독 앞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뒤엎으려고 애쓰는 바예수 또는 엘루마(번역하면 박수)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반박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를 보고 말하기를, 너 사단의 종아, 너는 얼마 동안 소경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곳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기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결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담대하게 되지 않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하여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도착하면 그들을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비난 중의 하나는 그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한 것같이 비난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아주 육신적인 편지이다. 그가 쓴 문체를 보라고 했습니다.

3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쓴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물론 육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싸움은 영의 세계에 있고 그곳이 진정한 승리를 얻는 곳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많은 경우 육적인 일에 빠져서 육적으로 투쟁합니다.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말려들어 패배합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사단을 대적하여 싸울 때 사단은 우리보다 더 이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움을 영과 영의 세계로 제한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사단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육적인 영역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사단은 지혜로우며 교활합니다. 사단은 지혜로워서 그가 우리를 육적인 것에 걸리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혜로우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에 있어 행할지라도 우리의 실제 싸움은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싸움을 영의 세계 안에 국한한다면, 당신은 분명한 장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승리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항하는 이러한 어둠의 권세를 패배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그의 승리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4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그가 언급한 것들은 다 영적인 것들임을 주목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한 전신갑주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다른 것들, 즉 우리가 가진 이런 영적인 방어들을 나열한 후에 그는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무기 중에 하나는 기도의 무기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로, 천사들이 신비로워하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무기를 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대해 너무나도 오래 기다린다는 사실을 이상히 여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나는 바다에서 아주 위험한 폭풍을 만난 배에 대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한 여인이 선장을 보고 말하기를, 선장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장은 대답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친 듯이, 상황이 그렇게 나쁘단 말입니까? 라며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실패할 때 기도하라”는 표어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만일 먼저 기도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기까지 왜 기다립니까?

누가복음(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러한 모든 정신적인 고뇌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이며, 상황이 점점 나빠져 갈 때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머리를 굽으면서 말하기를, 저들이 얼마나 오래

있다가 기도하려나? 왜 저러지? 왜 기도하지 않을까? 라고 하며 의아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들은 우리들이 일을 해결하려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하고도 영광스러운 무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세상에 요새를 두고 있습니다. 사단은 많은 당신의 친구들의 삶에 요새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의 요새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5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무기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무기들인 기도와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이론들을 다 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추겨 세우려고 하는 많은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의 대학들은 대체로 무신론적이고 완전히 세속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려는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아이를 대학으로 보낸 후 기도로 그를 감싸고 또 계속 기도로 그를 덮지 않으면 그 아이가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교육에 영향을 받아 그곳에서 살아남을 승산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불결케 하려는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광고판이나 잡지 등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려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부터 사실 오염되지 아니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당신의 상상을 현실화시키는데까지는 단지 시간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1장 13-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당신의 마음속에 행하면 그것이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육적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온 능력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의 마음의 영역 안에서도 승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6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거기 가면, 나는 일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나는 모든 복종치 않은 것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7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들은 바울의 외모에 대해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성서 자료에 몇 가지 묘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성서 자료에 의하면 그는 매우 키가 작았고 모난 얼굴형에 매부리 코와 눈에 안질이 있어서 항상 무엇인가가 그의 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력에 불편함이 있었으며 그는 사팔뜨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외모에 대해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느냐? 고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의 외모를 조롱하는 것에 대해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노라.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나도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조롱하게 하라.

8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은사는 실제로 너희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라고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나는 파괴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다. 물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도다. 나는 가서 너희를 온유와 사랑으로 섬기거나, 혹은 내가 담대함으로 가서 너희를 대항하여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도 있도다. 그렇지만 바울은 세우는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그들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는 자들을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저들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음 장에서 그들이 한 일들의 몇 가지를 언급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너희는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을 때에 너희로부터 아무 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여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또한 다른 모든 면으로 강탈하고 있도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속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들을 받아들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9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그들은 바울이 그의 편지로 저들을 놀라게 하려 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10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그들은 바울에 대하여 이런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외모는 약하고, 그는 단지 키가 작은 유대인일 뿐이며, 그의 언변도 하찮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시작한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기를, **11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 인줄 알라.** 우리가 거기에 갈 것이며,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거기 가면 우리가 편지로 할 때와 같은 힘과 능력을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여 줄 것이라. 그들은 그것을 볼 것이라!

12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해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나의 초기 사역 시절에 나는 교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이 항상 서로를 치켜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할 때 그 사람을 미사여구로 그 사람을 한껏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부풀려서 소개를 받은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를 소개한 그 사람을 부풀려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로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쉽게 속임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아직 되지 못한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골라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도 당신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표준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비교하기를 원하고 또 정직하게 비교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를 위한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의보다 못한 것은 아무 것도 당신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아주 세밀한 것들까지도 모두 지키려고 그들의 모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모든 종교의식을 지켰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헌금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큰 자랑거리였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그런 것들로 인하여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런 충격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성령께서 오실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4:16-18; 15:26; 16:7-11). 그 분이 오시면 그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천국으로 받아들이 의이며, 의의 표준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린 하나님의 선언이셨습니다. 이것보다도 낫지 못한 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천국에 들어 갈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이 하늘나라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의로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의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온갖 노력을 다 할지라도 당신 스스로 그 의에 이르지 못하며, 그 의에 이르려고 당신의 전 생애를 바친다 할지라도 당신은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기록 책에 우리의 의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비교하여 자신들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빈민가에 가서 나는 저들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해 과장된 소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교하는 표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비교하거나 측정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13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한 것보다도 더 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거나 일어났던 것들을 가지고 그들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풀려서 사실을 과장하여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한 것 이상이나 정도를 넘어 자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주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도를 넘어 자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은 나를 아카이아까지, 거기 고린도까지 가게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 전역과 지금은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마게도냐에 전했고, 그리고는 그리스에 그리고 아카이아에까지 전했습니다. 바울은 아카이아까지 갔고 비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때까지 로마나 스페인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더 먼 지역에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그가 갔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비전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곳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이루어 놓은 사역 위에 지으려고 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울에게서부터 분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도를 넘어 그들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린도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로 들어가 사람들을 의존하여 살고 있었고, 또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들 자신을 배부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14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고린도까지 갔노라.

15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16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우리는 미지의 지역으로 갈 준비가 되었도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시작한 곳에 들어가 떼어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파하려는 것이라.

참 재미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그룹들이 다른 믿는 자들이거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종교 단체로 끌어드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전도에 약합니다. 전도운동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을 감정적으로 매혹하려고 하지 진정한 성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비웃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은 그리스도인들의 단체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영역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는 그의 소원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수고 위에 세우기를 원하지 않노라. 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에 복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노라. 나는 길거리나 해변 등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서 죄인들을 붙들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규범 안에서 이미 이룩해 놓은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남들이 이룩해 놓은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7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사역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갈라디아서 6:14절)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로 자랑하지 말아야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9:23-24절)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찌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 인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18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했으며 등의 나의 자랑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며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칭찬하며 자신의 사역과 그 자신에 대해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야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요 관심이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주께서 받으실만한 것인가? 내가 내 자신과 내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주께 대한 나의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께서 나에게 대해서 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나는 사람에게 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 대답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생각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3절)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마치 그것이 너의 재질이나, 능력이나, 네가 소유한 어떤 것으로 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칭찬하며 높이는 대신에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과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울은 계속 할 것입니다. 사실 그는 11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엄하게 다룰 것입니다. 바울은 정확히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할 것이며 고린도에 있는 교회로 들어온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10장을 공부할 때, 10장과, 11장과, 12장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들어왔던 거짓 선생들을 다룬 것을 썼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미지의 지역으로 들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를 기꺼이 자원하는 개척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기초를 세웠던 곳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잃은 영혼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영접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새롭게 왜곡하므로 그들을 매혹하여 그들의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전도를 하는 주된 취지는 개종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가 실제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새롭게 왜곡한 것과 어떤 새로운 축복들과 새로운 감정의 흥분을 소개하므로 이미 확립된 교회로부터 떨어뜨려 나가도록 개종시키려고만 노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기식하는 기생충들입니다.

바울은 개척자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기초를 세운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에 가서 새롭게 개척하기를 기꺼이 자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뒤를 이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그 복음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개하고, 행함으로 의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개종하여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람들 사이에 자기 자신들의 생각들과 교리들을 확립시키려 했기 때문에 바울을 나쁘게 평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 즉 가만히 들어와 사람들을 끌어 바울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애쓰는 이러한 기생충들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세우고 그들의 파괴적인 교리를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을 나쁘게 비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고린도에 생겼습니다. 고린도에는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바울이 전했던 이 순수하고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로부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10장, 11장, 12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켜 사람들을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을 영적으로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는데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양떼들을 속여 빼앗는데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11장에서 고린도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장에서부터 이들을 다루기 시작했고, 10장 마지막 절에 그는 말하기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고 하면서 10장을 끝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굉장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 그들 자신을 자랑하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을 부풀려 올렸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 자랑하고 있는 것만큼, 바울은 말하기를, **1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 자랑하기를 원하니, 나로 나 자신에 대해 조금만 나누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네가 한 것처럼 자랑할 수 있느냐? 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고한 은혜와 자비로 행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운이 좋아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특권을 가졌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인정한다면, 결코 자랑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의 얼마를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나는 질투를 느끼노라. 왜냐하면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부터 너희를 끌려고 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너희의 사랑을 끌려고 하고 있고, 나는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왜냐하면 나의 관심은 너희들이기 때문이라.

나의 소원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였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많은 선생들을 가졌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믿게 한 나는 너희의 아버지로다. 아버로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자녀들, 딸들인 교회를 중매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결혼을 중매로 정했는데, 아버지가 딸이 누구와 결혼하는 가에 관해서는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결혼할 때까지 처녀로 있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었습니다. 그가 신랑의 아버지와 결혼 지참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딸을 신부로 세울 때에 한 순결한 처녀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를 교회에 비교하여 들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여 결혼시키려고 정하였노라. 나는 아버로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3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들은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주, 다른 예수께로 마음이 끌려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순결한 처녀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개념과 생각들로 오염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을 한 순결한 처녀로 드리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같이 이러한 선생들도 그들의 간계를 통해 들어와 너희를 속일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여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단순한 복음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고 또 요구 조건들을 첨가하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경에서는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주님이 오셨고, 나의 죄를 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하고, 기도는 얼마나 하여야 하며, 헌금은 얼마나 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또 이러한 많은 것들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 단순한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했습니다.

4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신약에 계시되지 않은 다른 예수가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계시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4절에, 태초에 로고스(logos), 즉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 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러 온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그가 세상에 오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신약 전체를 통하여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를 전파하지만, 그들이 전파하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 피조물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낮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물론교인들도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들도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에 대해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교인들이 믿는 예수는 루시퍼의 형제였습니다. 예수와 루시퍼가 엘로힘, 하나님께 세상을 구속할 그들의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예수가 제안한 계획을 엘로힘은 받아들였고, 그것은 그의 형제 루시퍼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계획을 망쳐 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천상의 경쟁심과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형제간에 있는 경쟁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 루시퍼의 형제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신약에 어느 곳에서도 예수가 천사장 미가엘이거나 루시퍼의 형제라고 언급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1:14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들을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는 그들의 말은 잘 듣는구나! 그들은 너희에게 짐을 지우고 있고, 그들이 너희를 노예로 만들고 있는데 너희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5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을 헐뜯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 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 내가 비록 말에는 줄하나, 이것이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능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가 왔을 때, 그의 열망은 달변으로 그들을 개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설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언변에는 서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너희가 나를 알다시피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 보였도다.

7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이 그들에게 갔을 때 그는 자신을 낮추고, 그들 가운데서 섬겼고, 그들과 함께 또 그들 곁에서 일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높이기 위해 그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죄를 진 것이냐? 나는 어떤 헌금도 받지 않았고, 너희로 나를 부양케도 하지 않았으며,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종으로서 왔노라.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8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그는 다른 교회로부터 보내어진 선교사와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곳곳에 있는 수 백명의 선교사들을 돕는 것처럼 그들은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우리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여러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상태에 있으므로 선교사들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사들이 거기서 수고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 의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후원했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9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나는 너희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않았거니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

10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사취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거리낌 없이 섬겼다는 사실을 자랑하지 못하게 나를 막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희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받으려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비난하지 못하리라. 그것은 결코 내가 원하는 것도 뜻하는 바도 아니라.

11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나?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나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은 아신다.

12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함이라. 내가 이 일을 계속하리라. 이런 자들은 나를 대적할 것들을 찾고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유익을 위하여 주를 섬긴다고 비난하는 그들의 비난의 기회를 끊어버리리라.

나의 사역의 처음 17년 동안은 나는 가족을 부양기 위해 세상의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만한 교회의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기 위해서 온갖 여러 종류의 일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자가 되거나 돈을 벌려고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우리는 일 주일에 15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는 일 주일에 25불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는 일 주일에 20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역에 불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는데, 나의 사역 가운데 처음 17년간을 돌이켜 가리킬 수 있는 이런 나의 진지함을 증거 할 것을 가지고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에 갈보리 채플에 와서 이곳에서 목사로 섬겼을 때 나는 가족을 부양키 위해 이동 주택을 수리하고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바울도 같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는 사람들을 착취하여 부자가 되려고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들을 섬기려고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자들이 나를 비난하려고 찾는 어떤 기회도 끊어 버리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로 나와 같이 되게 하려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정말로 정직하다면 너희에게서 헌금을 걷는 것을 멈추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로 나와 같이 되게 하라. 바울은 그들이 이런 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멈추는 즉시 그들은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3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그들은 참 사도들이 아닙니다. 궤홀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을 사도라고 자칭했습니다.

14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15 그러므로 사단의 일군들도 자기를 의의 일군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거짓 사도들이요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기꾼들이요. 그들은 가장하여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에 의해 속아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강한 비난입니다. 그는 가차없이 정면으로 저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사단의 종들이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16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17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바울은, 이것은 영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말이나 이러한 자들이 자신들을 과장하여 높이며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을 조금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기에 말하노라.

18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이런 자들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기에 **나도 자랑하겠노라. 19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희는 이런 자들을 용납하도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인데, 너희는 그들을 영접하는구나. 이것은 매우 비꼬는 듯한 말로,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의해 이용을 당하였도다.

20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이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을 율법의 속박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잡아먹거나 (너희를 이용하거나) 사로잡거나 (그들이 너희를 사취하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육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너희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영적으로 그들을 학대하게 하는지 바울에겐 믿을 수 없는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21 우리가 약한 것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나도 담대할 수 있도다

22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우리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 저희들을 율법 아래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화 주의자들이었습니다.

23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욕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사십은 심판의 숫자입니다. 성경에 있는 숫자에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십은 심판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했을 때 주야로 사십일간 비가 내렸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십이라는 숫자는 자주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삼십 구는 자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재판소에서 채찍질 하라고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을 심판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서른아홉 번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자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십에 하나 감한, 서른아홉번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25 세 번 대장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 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 바울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파선했는데 한 널빤지를 붙들고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26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가 겪었던 위험들과,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다른 모임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보고들을 듣고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편지들을 보내야 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살피어야만 했습니다.

29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나도 약하고 애타합니다.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미꽃 길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30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지만 만일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나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확실히 나타내기 위하여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31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32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33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은 다메섹에서 매우 불명예스러운 출발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과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12장에서 그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 중에 얼마를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인내하였던 위험, 고통, 배고픔, 춥고 헐벗음, 바다에서의 위험 등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는 주제를 돌려 그가 받았던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계시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성령께서 그에게 보여 주셨던 계시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면서 12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 12장과 13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의 삶을 바쳤던 바울 같은 사람들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승리를 얻기 위하여 경주를 달렸습니다. 우리에게 헌신의 본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13장

고린도후서 12장을 펴십시오.

12장 1절은 헬라 원어의 구성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영어로 잘 번역되지 않지만 역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1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근본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로 자랑하게 만드는데, 사실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장들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에 그를 뒤따라 들어왔던 방해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개척지로 들어가서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매우 든든한 교회로 세워놓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한 2년간 있으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 거짓 선생들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전하였던 은혜의 복음에 도전하면서 그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것들을 찾고 있었고, 율법 아래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그것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입장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의 소명을 변호하고 있으며, 또 저들에게 전한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군으로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고통과, 위험과, 개인적인 형벌등의 어려움들을 포함했습니다. 매맞음과, 돌로 맞았으며, 감옥에 갇힘과, 배의 파선,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었든지 그가 사역했던 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사도로서 사역의 외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사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인줄 알지만 너희가 나로 하여금 강제로 자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그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계시들입니다. 그는 매우 놀라운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그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십 사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를 쓰기 약 14년 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몸을 성읍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의 동역자들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매우 용감한 믿음의 군사였었기에 그들은 그를 둘러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둘러서서 울고 있을 때, 갑자기 그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다시 성읍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아직 나의 메시지를 끝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내가 몸 밖으로 나가는 경험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는 셋째 하늘에 끌려올라 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세 개의 하늘을 말합니다. 그 하나는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의 하늘을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경계가 없는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놓으신 천체의

하늘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우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늘들에 있는 그의 보좌 곧,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하시는 하늘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개의 하늘, 즉 대기층의 하늘과, 천체의 하늘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을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은 일곱 하늘에 대해 말했습니다. 물몬교인들도 일곱 하늘을 택하여서는 하늘의 일곱 단계와 영광의 등급 등에 대해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 개를 언급합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로 끌려올라 갔습니다. 그는 그곳을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낙원으로 끌려올라 갔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그는 말로 묘사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 그들은 궁극적인 체험을 갖는 가능성에 대해 말합니다. 이 궁극적인 체험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도 모릅니다. 이런 궁극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들은 모릅니다. 이 궁극적인 체험이 갖고 있는 문제는 말로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나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일 어젯밤 나는 궁극적인 체험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에 대해 말해 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 그들은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이 궁극적인 체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묘사할 말이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점에서 이 궁극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인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갔고 거기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들을 들었는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범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기서 경험했던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아직 고안되지 않았거나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묘사하려고 하는 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로 묘사하려하면 실제 경험보다도 훨씬 저하 시키고 감소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지난번 침례식 때에 저녁놀이 진 하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수평선 위에 해가 저물면서 하늘은 아름다운 분홍빛과 주홍빛 등으로 물들었습니다. 색깔들이 바다 물을 가로지르면서 반사되었고 종려나무들은 향만의 다른 쪽 하늘에 긴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만일 앞을 못 보는 장님에게 당신은 이 광경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잔잔한 물결과 하늘의 여러 가지 색깔들과 구름 등을 장님에게 어떻게 그것을 묘사하겠습니까? 당신이 말하기를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분홍빛이었다고 말한다고 합시다. 분홍빛? 그것은 주홍빛이기도 했습니다. 주홍빛? 당신이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광경의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장님으로 태어났던 어린 여자아이에 대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여섯 살이 되었을 때 의사에게 검진을 받았고, 그 의사는 수술로서 그 여자아이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파란 하늘과 솜털과 같은 구름 그리고 초록색 잔디와 각 가지 색깔의 꽃 등을 설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려 했고, 그 아이에게 말로 그림을 색칠하려고 아이와 매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흥분된 기대를 갖고 수술을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붕대를 풀러갔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밝은 빛으로 아이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조금씩 붕대를 풀러 빛이 눈 신경에 조금씩 닿게 하여 마지막 붕대를 풀었을 때에 큰 충격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붕대를 푸를 날이 왔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붕대가 다 풀려지자 아이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묘사했던 방을 보았으며 방 앞에 있는 큰 창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으로 달려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파란 하늘과, 솜털 구름과, 아이들이 노는 것과, 초록색 잔디와, 예쁜 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는 다시 엄마에게로 달려와서는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말하기를, 왜 나에게 그것들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자 했으나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실제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천국은 아름다운 곳,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곳. 나는 나의 구세주의 얼굴 보기를 원하네. 천국은 아름다운 곳. 나는 거기에 가기를 원하네.” 라는 찬양을 부르곤 했습니다.

진실로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경험에 대해 말을 하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가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있었는지 나는 확실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의 동역자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몰랐고, 단지 내가 아는 것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 것이라. 나는 낙원으로 들려 올라갔었고 거기서 영광스러운 것들을 들었노라.

5 내가 이런 사람을 (그것은 이 영광스러운 계시와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 사람)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6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것들을 묘사하려고 하지 아니하노라. 그 첫째 이유는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을 일종의 영적 대좌에 올려놓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빌리 그레함 목사 등 이런 사람들을 일종의 영적 대좌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와, 그들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분들이다! 우리는 대체로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실제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거기에는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진흙으로 된 발을 가지고 있다는 말처럼, 그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대좌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텔레비전은 사람들을 “스타”의 위치로 올려놓는 어떤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실제 보다도 더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들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되고, 그들이 진흙의 발을 가졌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는 너무나 황당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고 그만 두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실제 나 보다 더 높이, 더 좋게 생각하고 또 너희가 나에게 관하여 들은 것과 보는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하노라.

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놀라운 하늘의 계시를 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계시가 지극히 풍성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개인지도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이방 세계에 전해야 할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의 계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극히 풍성한 계시로 인하여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교만을 갖게 되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열등하게 생각하고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높이고 그러한 대좌 위에 올려놓지 않도록,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가시란 단어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것은 헬라어 말로 텐트를 치는데 사용하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조그마한 장미 가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한 질병이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어떤 추측도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알려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고 누구든 자기 생각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었던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그것이 눈에 문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눈물이 계속 흐르게 하는 동양에서 온 질환이 있었습니다. 눈에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매우 흥했습니다. 그것은 시력에 장애가 되었고,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으로 인해 계속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것은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갈라디아서 6장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약한 시력으로 인해 큰 글자로 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가 가졌던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10절에서 바울은 이 가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었던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이것이 가장 최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모르므로 그냥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를 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봅니다. 그것은 그가 받은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가 자고하지 않고 그를 계속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겸손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 오, 그는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 주께서는 바울을 위하여 무엇이든 해 주시리라고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울은 주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9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바울이 응답하기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제와 주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들을 갖지 않고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보다도 나는 오히려 그 가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이곳에서 부목사로 있었고, 지금은 산 호세 갈보리 채플에서 시무하고 있는 단 맥클루어 목사는 최근에 뇌졸중을 일으켰습니다. 그 뇌졸중의 압력으로 인하여 그의 오른쪽 눈의 망막이 파괴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오른쪽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어 그것에 대해 말하면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단 목사는 나에게 말하기를 그의 오른쪽 눈이 장님이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자신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너무 적극적이었고 운전을 할 때도 모든 사람을 앞질러 갔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선에서 운전하는 자신을 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오른쪽에 있는 차들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오른쪽 차선에서 운전하는 늙은 할아버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은 너무나도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행하여 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교훈들을 경험함으로 한 쪽 눈을 잃은 것이 가치가 있으며 다시 두 눈을 갖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육체에 가시를 갖고 있다. 나는 주님께 이것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했노라. 그러나 나는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위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과는 결코 바꾸지 않겠노라. 나에게 주신 풍성한 계시들과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주님의 힘과 능력과 내가 주님 안에서 갖는 이 관계를 그 어느 것보다 바꾸지 아니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고 했습니다.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강하다고 느끼는 곳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더 강한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 당신은 어쩔 줄을 몰라 망해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약한 부분에 당신이 약한 것을 알 때, 나는 이것을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당신의 약한데서 온전하게 되어 당신이 설 수 있게 하십니다. 당신이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던 것을 당신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강제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그분의 능력을 받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 주님의 힘과 나의 힘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일종의 사과를 합니다. **11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너희가 나로 억지로 자랑하게 하였도다.** 나는 하기를 원치 않았도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그를 도전함으로 인하여 그는 억지로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나를 억지로 시킨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 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른 모든 사도들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라!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보다 조금도 더 높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을 높이고 추켜 올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아무 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떨어질 것이 없노라. 이것은 그들도 아무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같은 수준에서 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 당신은 하나님과 더 가까우시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가깝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는 그 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해 둘러 싸여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가깝습니다!

12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너희는 나를 칭찬해야 할 것이라. 너희 가운데서 본보기의 삶을 살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가져다주었던 사람이 바로 나였도다. 내가 진리를 전했노라. 나는 너희에게 나 자신을 변호해야 할 필요가 없도다.

이런 자들이 들어왔을 때, 사도의 표적들로 인해 너희들이 나를 변호했어야 하였도다. 그들이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라고 하며, 그의 사도직을 그들은 계속 비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표적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사도됨을 증거했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 의하여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13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거기서 세운 사역은 다른 교회들 보다 열등한 것이 없도다.)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나는 헌금을 걷지 않았고, 너희에게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않았도다. 이것이 잘못이라면 나를 용서하라. 성경은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의 수고는 그의 고용에 족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로부터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6: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고 했습니다.

14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 자신을 위하여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나는 너희가 갖고 있는 돈이나 지위나 그 어느 것도 구하지 않으며 나는 너희를 구할 뿐이라. 나의 사랑은 너희를 위함이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15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주 기꺼이 쓰고 내 자신마저도 쓰리라. 나는 너희로부터 아무 것도 구하지 않노라! 이것은 오늘 날 끊임없이 기금을 위하여 간청하고 있는 많은 사역 기관들과 너무나 다른 태도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보조를 받으려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특별 기부금을 위하여 그들의 사역에 계속적으로 위급한 상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주고 내 자신까지도 주리라. 나는 너희의 돈을 구하지 않고 오직 너희를 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바울은 내가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16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궤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속여서 붙들었다고 하는구나.

17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를 취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어서 당장 헌금이 필요하니 너희의 헌금을 그에게 보내라고 하더냐?

18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를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그곳에 들어온 이런 자들이 그를 모욕하려고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강조하는 것을 주목하라! 그들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너희에게 재정적으로 후원하도록 강조하도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주목하라.

베드로도 쓰기를, 너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 또는 속이는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표적은 사람들에게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속이는 말과 속이는 술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그들은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더냐? 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19 이 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도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것은 너희를 세우기 위한 것이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노라. 나의 마음은 너희를 위함이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기쁨으로 섬겼고 또한 섬기리라.

20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통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 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나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노라! 나는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과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분열이나 험담 등을 하기를 원치 않노라.

그것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어온 독이었습니다. 그러한 논쟁적인 사람들은 단어나 의미 같은 것으로 논쟁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와 다통을 야기 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서 그러한 것들을 보기를 원치 않고 또한 너희들이 나에게서 그러한 것들을 보기를 결코 원치 아니하노라!

21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있게 사용하시므로 나를 낮추셔야만 되는 것을 원치 않노라.

초대 교회 때에 사도행전 5장 1-11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어떤 이들은 그들의 소유를 팔아 그 돈을 가지고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를 그들 자신을 위해 감추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일부를 바치면서도 위선적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바치는 것이 죄가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소유하고 있었을 동안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팔라고 강요하였거나 요청했느냐? 그것을 판 것으로부터의 모든 이익금을 교회에 가져오라고 누가 너희를 강요했느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아니요입니다. 그들의 죄는 일부를 남겨 두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실제로는 얼마를 감추어 놓고서 마치 모두 다 드리는 것처럼 하는 위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실제의 그들 보다 그들을 더 높게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와, 저들을 보라. 너 저들을 보았니? 하며 그들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벌은 대단히 심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도 같은 위선으로 말했을 때, 그녀도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가서 사람들이 엎드러져 죽음으로 인해 겸허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중 몇 사람으로 인하여 애통하게 될 것이라. 나는 너희 중 몇 사람으로 인하여 애통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수년 전 내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로 알려진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오직 하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이고 아들이며 성령이시라고 하여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애리조나 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오직 예수"신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장년 주일 성경 공부 반에서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관심을 갖게 하였고 그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위해 몇 개의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를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을 바로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분은 복화술(腹話術)사 이셨습니까? 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나는 말씀으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논쟁하지 않으므로 그는 내가 동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는 잘못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일 성경 공부 반에서 이 “오직 예수”의 견해가 성경적이며 옳은 것이라고 여러 다른 사람들을 수궁하게 했기 때문에 그 주일 아침에 이것으로 대단한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목사님도 이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선생이 나에게 와서는, 스미스 목사님 당신도 이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가서 그들에게 알게 하여 이 일을 바로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오직 예수” 교리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분께서는 세 인격이신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세 인격, 신성의 세 신격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오, 이것은 그들에게 신에 대한 모독인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언을 하기시작 했습니다. 그는 한 관(棺)을 보았는데, 그가 그 관안을 들여다보니 내가 그 관안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두 주간 안에 회개하고 온 회중에게 “오직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나를 그 관에 실어 교회 밖으로 들고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그 다음 주 일요일 교회에 진실을 말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시간을 토요일 밤까지 주었습니다. 만일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토요일 밤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나는 “오직 예수” 교리를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결점들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것을 말하지 말고, 토요일 밤에 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 밤에 전화를 했고, 그는 그의 예언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날 일요일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이 영향을 끼쳤던 다른 가정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들이 모두 나왔을 때보다도 그 다음 주일날 더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셨습니다. 문제는 두 주간 안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가 관을 보긴 보았지만 얼굴을 잘못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는 한 지역 교회에 목사로 가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매우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전에 사역하던 목사가 비윤리적인 일을 저질러 경찰에 체포되어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그 교회에는 그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목사는 거기서 13년간을 섬겼고 그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였고, 교단의 감독이 나에게 그곳에 가서 섬기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사실 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당시 섬기고 있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세 사람의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그것으로 투표를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교단 감독에 대한 호의로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투표용지에 이름을 그저 올려놓기만 해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관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정말로 가기를 원치 않았기에 아내에게, 만일 첫 번째 투표에 나를 만장일치로 뽑지 않는 한 그곳에 가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그 상황에 맞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번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나는 오, 아닌데, 라고 말했지만 이 성경 말씀은 모든 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요일 저녁에 이사회의 회장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스미스 목사님, 교회가 새로운 목사 문제에 대해 투표를 했고 그 결과는 첫 투표에 만장일치로 당신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주의 뜻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순종은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자주 실수를 합니다. 오, 나는 주께 순종하리라.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신다면,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순종은 당신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있기를 원하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하여 택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더 나은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님께서 나로 오고, 가고, 머무를 곳을 명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우리가 교회로부터의 초청을 받아들인 후에 한 여인이 사람들을 모아서는 현재 우리의 목사는 참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목사를 위해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불화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주일날부터 시작하기 전 수요일 밤이었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전부터 이 불화를 조성했습니다. 그녀가 교회에 가려고 하던 수요일 밤에 그녀는 차에 치어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하게 다루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여 손을 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고린도에 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중 몇 사람으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시는 일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우리는 비난하는 것들을 흠어볼 것이라. 구약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것들은 두 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될 것이라.

2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금 너희에게 경고하고 있노라! 내가 다시 갈 때에는 죄 짓고 있는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룰 것이라.

3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용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 것이며,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6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바울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과 관계하며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실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전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창녀와 합한다면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을 너희가 그러한 관계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라. 그래서 바울은 진정으로 그들 자신을 조사해 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의 행위가 너희가 말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말하노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고 믿노라.

7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너희 마음에)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8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항상 위로가 됩니다. 진리는 고수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9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나는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노라. 나는 너희의 온전함을 구하노라.

10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그들을 세우는데 사용하고 그들을 파멸하는데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을 파멸하는 것이 아닌 세우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eremacasmus입니다. 이것은 자연계에 서서히 불붙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땅에 금속 한 조각을 놓고 며칠이 지나면 그곳에 작은 갈색 점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eremacasmus 라고 하며, 이 자연계에 서서히 타는 불이 점차적으로 그것을 모두 파괴합니다. 어디에나 eremacasmus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 전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역학의 두 번째 법입니다-eremacasmus.

우리는 강철을 달구는데 불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만들려고 불로 그것을 어느 선까지 달굽니다. 불로 달굴 때 어느 것은 더 굳어져서 거의 반영구적이 되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불에 소모되어지거나 파괴되어집니다. 같은 불로 어떤 것들은 반영구적으로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다른 것들은 파괴되어지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왕 때에 (이사야 37장), 이사야가 그를 섬기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도시가 앗수르 군대에 의해 둘러 싸여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왕에게 하나님께서 앗수르인들을 유대인들의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이 앗수르 진을 보았을 때 그들은 단지 죽은 시체들만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쳤습니다. 온 진에 단지 시체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있는 죄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우리 가운데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로 보았고 하나님의 불이 앗수르 군대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죄인들과 위선자들의 마음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오, 하나님의 불이 한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할 수 있겠는가?

당신 삶 가운데,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영적으로 세우는 데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파괴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은사를 너희를 세우는데 사용하기를 원하며 너희가 파괴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것들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노라. 내가 거기에 도착할 때에 대결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1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온전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결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분열을 멈춰라) **평안할자이다.** (당파를 짓지 말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2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3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애리조나에 있었던 사람과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축도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이러한 경고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고, 평강과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헌신되고 맡기고, 세상의 것들로 떼문지 않고, 순결한 가운데 행하고, 거룩함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새롭게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드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